

美國 企業構造의 長期的 變貌: 企業 및 産業競爭力에 대한 示唆點⁽¹⁾

李 澈 羲

이 논문은 미국 기업구조의 역사적인 변화과정과 그 요인을 살펴보고 그 역사적인 교훈을 모색하였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近代의 大企業의 형성은 19세기 중반 이후 나타난 市場의 확대와 技術의 변화에 대한 경영자들의 조직상의 대응이었다. 19세기 말 대량유통과 대량생산의 수직적 통합에 의해 출현한 선도적 대기업들은 이후 생산규모의 확대, 다각화를 통한 인근산업으로의 진출,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과 기술의 변화 이외에도 資本·勞動市場의 특성과 정부의 規制와 같은 경영환경도 대기업의 성장과 구조상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논문은 또한 미국 대기업들의 재무, 회계, 지배구조의 장기적인 형성과정을 개관하였고, 미국의 역사적인 경향이 오늘날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던져주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1. 머리말

이 논문은 18세기 말 이후 미국 기업구조의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산업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사례를 제공해 준다. 미국에서는 가장 먼저 近代의 大企業이 출현했으며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혁명적인 기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대기업에 대한 전통적인 반감과 빠른 대기업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강력한 반독점법의 출현을 가져왔다. 20세기 초까지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철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졌고, 기업의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관료제적인 내부노동시장의 발전을 경험하였다. 최근의 기업회계부정사건으로 그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기는 했으나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기업을 가진 나라로 인정받아 오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 기업의 역사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19세기 말 이후 미국 기업의 組織上의 力量(organizational capability)이 적어도 1970년경까지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시켜온 원동력으

(1)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연구센터와 2003년도 두뇌한국 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다.

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기업구조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 및 산업 경쟁력 연구에 있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비판적인 문헌연구를 수행하려고 한다. 먼저 19세기 중반까지 소규모 가족기업에 의해 대표되던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불과 반세기 동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근대적인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모한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선구적이며 대표적인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는 알프레드 찬들러(Alfred D. Chandler)의 견해에 따르면 근대적 대기업의 형성은 19세기 중반 이후 나타난 시장의 확대와 기술의 변화에 대한 경영자들의 조직상의 대응이었다. 19세기 말 대량유통과 대량생산의 수직적 통합에 의해 출현한 선도적 대기업들은 이후 생산규모의 확대, 다각화를 통한 인근산업으로의 진출, 해외투자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기업구조의 변화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찬들러의 연구가 중점을 둔 바 있는 시장의 확대 및 기술의 변화와 함께, 그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는 資本市場, 勞動市場, 政府의 規制 등의 요인들을 고려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기업구조가 영국, 독일과 같은 다른 선진국과 다른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미국기업의 財務(corporate finance), 會計(financial and managerial accounting) 및 支配構造(corporate governance)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19세기 초반의 운하와 철도의 건설, 그리고 19세기 후반을 통한 기업규모의 확대와 함께 외부자본동원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자본시장이 크게 발달한다. 19세기 말 이후의 기업규모의 확대, 다각화와 해외진출로 인한 조직의 복잡화는 전문경영인에 대한 의존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속화된다. 한편 자본동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자본시장에서의 정보상의 비대칭성의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다. 정보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주로 채권이나 優先株(preferred stocks)를 통해 자본을 동원하다가 1920년대에 와서야 普通株(common stocks)에 의한 자본조달이 일반화된다. 보통주 발행이 늘고 주식투자가 대중화되면서 기업정보공개요구의 확대되고 이에 따라 기업재무회계 및 기업공시에 있어서의 진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업들은 1930년대의 증권법 통과 이후에야 기업정보공개요구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여전히 기업의 정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미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1930년대의 증권시장개혁 이후 기업의 투명성은 크게 제고되었지만 이는 19세기를 통해 발전해왔던 기업내부의 정보체계를 왜곡하여 1960년대 이래로 기업 경쟁력의 악화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미국 기업의 지배구

조, 자본동원방식, 재무 및 경영회계의 역사적 변화를 개관하고 그 변화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그것이 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2. 近代의 大企業의 登場

2.1. 19世紀 初까지의 企業形態

산업화가 막 시작되던 19세기 초까지 일반적인 미국기업의 형태는 중세적인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도·소매업, 수출입, 운송, 금융, 보험, 창고업 등 유통의 여러 과정은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大商人(grand merchants)에 의해 담당되었다. 기업의 주된 형태는 가족기업 및 파트너쉽(partnership)이었고 기업회계는 중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복식부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당시로서 가장 복잡한 조직체였던 第2次 美國銀行(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도 최고경영자와 두 사람의 직원에 의해 운영되었던 것이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19세기 초를 통해 유통의 수량이 커지면서 면화의 거래와 면직산업을 중심으로 유통의 기능이 분화하고 전문적인 업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840년경까지도 기업의 형태, 조직, 운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Chandler(1977)는 이때까지도 기업조직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기술의 제약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다. 즉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유통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교통통신기술의 제약으로 인해 유통의 속도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기업조직으로도 충분히 유통기능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제조업부문에 있어서도 기업의 형태는 유통부문만큼이나 전근대적이어서 1840년경까지도 전통적인 小規模의 匠人作業場(artisan shop)이 생산단위의 주류를 이루었다. 19세기 중엽까지 전문경영인을 고용했던 비교적 대규모의 생산조직은 다수의 노예를 보유한 남부의 대농장, 동북부의 면직공장, 그리고 최초로 ‘美國式 生産工程(The American System)’이라고 일컬어지는 호환성 부품과 연속공정을 도입한 총기공장 등 소수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기업조직 진보의 지체는 노동공급 및 생산기술의 제약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비교적 느린 소규모의 생산은 전통적인 기업조직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조직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이다.⁽²⁾

(2) Chandler(1977, 1-2장) 참조. Sokoloff(1984)의 연구에 따르면 이미 19세기 중엽 이전에 기계의 도입과 같은 기술의 변화가 아닌 공장제를 통한 생산의 통합과 노동통제의 강화와 같은 생산방식의 변화가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2. 鐵道會社: 近代의 大企業의 嚆矢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대적인 대기업의 선구자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의 철도회사들이었다. 철도는 기존의 주요 교통망이었던 운하와 비교할 때 두 지점을 더 짧은 거리로 연결할 수 있고, 속도가 더 빠르며, 계절, 기후, 지형의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인 운송수단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운하의 이용을 빠르게 대체했다. 1840년대를 통해 6000마일의 철도가 건설되었고, 1850년대를 통해서는 21,000마일의 철도건설이 이루어졌다. 1860년대부터는 철도회사들은 독립된 철도망들의 통합을 위해 설비의 표준화, 철도망의 물리적인 연결, 운임의 결정, 화물 등급의 결정 등 운영상의 공조를 위해 협력하였다. 그 결과 1880년대에 이르게 되면 철도망의 통합이 완성되어 장거리 이동에 있어서도 열차를 바꾸어 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철도망의 통합과 함께 철도산업의 경쟁도 가열되었다. 초기에는 카르텔을 결성하여 경쟁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1880년대 중반까지 협력이 붕괴되었고 이후부터 1900년대까지는 대규모 철도회사들에 의한 長距離鐵道網建設(system building)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미국의 철도회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경영조직을 갖게 된다.⁽³⁾

철도회사가 일찍부터 근대적 대기업으로 발전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철도산업의 성격이 큰 역할을 하였다. 먼저 철도는 큰 규모와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대규모의 자금과 함께 전문적인 운영기술이 필요로 하였으므로 초기부터 所有와 經營이 分離되는 것이 불가피했다. 둘째로, 철도회사는 규모 거대함과 철도운영의 복잡성으로 인해 中央集權의인 經營組織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초기의 철도는 단선을 운영했으므로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상황실에 열차의 위치, 수송량 등의 정보를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와 통제가 요구되었다. 또한 수많은 직원들을 고용했던 만큼 감독의 중요성이 컸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經營上의 位階秩序(managerial hierarchy)를 구축하고 공적인 인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또한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건설, 보수, 운영, 서비스, 마케팅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해야 했으므로 支部(division) 및 職能別 部署(department)의 설립이 불가피했다. 끝으로 철도는 철로, 기관차, 터널 등의 설비에 대해 막대한 고정자본이 투자되어야 했으므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의 외부자본을 동원하였다. 따라서 외부투자자들을 위한 감사와 회계의 중요성이 컸고, 일찍부터 기업의 회계 및 운영

(3) 1891년 당시 가장 규모가 컸던 철도회사인 펜실바니아 철도회사는 11만 명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1억 35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당시 정부의 가장 큰 조직이었던 우체국 종사자가 10만 미만이었고, 정부의 총수입이 4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던 사실은 철도회사의 규모를 짐작케 해준다.

상의 情報公開을 정규화할 필요가 있었다.

철도회사는 그 자체로 근대적 대기업의 효시가 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갖는 더 중요한 의의는 제조업부문에서의 근대적 대기업 형성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먼저 경영조직의 혁신과 같은 철도부문의 경험은 다른 부문에 대해 선도자로서의 모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철도회사는 대기업 경영의 경험을 가진 專門經營人 양성소의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는 철강업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펜실바니아 철도회사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철도부문의 대규모 자본동원은 株式 및 債券市場의 발달을 가져왔다. 미국 동부의 자본가들은 물론 유럽의 자본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월스트리트는 런던에 버금가는 자본시장으로 부상하였고 모건(J. P. Morgan)을 비롯한 철도전문 투자은행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성장을 배경으로 적어도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제조업부문의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2.3. 近代의 大企業의 性格

제조업부문에서의 근대적 대기업의 형성은 19세기 말에 시작되었으며, 20세기 초까지는 오늘날 볼 수 있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관료제적인 경영조직을 갖춘 대기업들이 기업의 중심적인 형태로 대두되었다. 대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여 1929년에는 미국 제조업부문의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제조업생산량의 25%를 차지하게 된다. <表 1>은 1947년 이후 미국의 200대 대기업들이 경제에서 차지해 온 비중을 보다 자세하게 보여준다. 제조업부문 부가가치액에 있어서 200대 대기업의 비중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미 30%에 달하였고, 1980년대 후반까지는 43%로 증가하였다. 1987년 현재 미국 200대 대기업은 전체고용의 30%, 임금지급액의 40%, 신규자본투자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근대적 대기업의 형성요인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이 시기에 출현한 대기업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산업의 분포를 보면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20세기 초 미국의 200대 기업 가운데 80% 이상이 식품, 화학, 석유, 금속 및 세 가지의 기계(비전기, 전기, 운송장비)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후 식품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화학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20세기 초 대기업 집단의 산업분포는 1980년대 말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 <表 3>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들의 산업별 분포는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대기업들의 기업조직을 보면 다수의 경영진으로 이루어진 관료적인 위계를 그 특징으

〈表 1〉美國 製造業部門 200대 企業의 經濟力 集中度, 1947-1987

	1947	1958	1967	1977	1987
제조에 의한 부가 가치					
50대 회사	17%	23%	24.6%	24.4%	24.9%
100대 회사	23	30	32.8	33.4	34.4
200대 회사	30	38	41.6	43.7	43.2
종업원 수					
50대 회사	-	-	20.2	17.9	16.8
100대 회사	-	-	26.4	25.0	22.5
200대 회사	-	-	33.7	33.4	30.6
지불급료 총액					
50대 회사	-	-	25.2	24.8	24.1
100대 회사	-	-	32.4	32.9	31.0
200대 회사	-	-	40.3	42.1	39.8
새로운 자본 지출					
50대 회사	-	-	27.4	28.0	27.2
100대 회사	-	-	40.3	38.5	36.4
200대 회사	-	-	51.5	49.2	46.6

資料: Chandler and Hikino(1997, p. 47).

로 하는 것이 발견된다. 〈그림 1〉~〈그림 3〉은 몇 가지 대표적인 기업조직의 형태들을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먼저 所有主企業(the entrepreneurial firm)은 가장 전통적인 기업조직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單一工場企業(single plant firm)에서 발견된다. 경우에 따라 중간관리자나 그 밖의 경영진에 의해 보조를 받기도 했지만 일상적인 운영상의 결정과 장기적 계획의 수행을 所有主經營者(owner-manager)가 통제했던 형태이다. 〈그림 2〉의 형태는 U形(U-Form)으로 불리는 중앙집권적이고 機能的인 부서들을 갖춘 企業型(centralized, functionally departmentalized firm)이다. 이 형태의 특징은 기업의 업무가 복잡하게 되면서 상이한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부서가 설치되고 각 부서의 중간관리자가 판매, 재무와 같이 특화된 업무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결정과 업무의 통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3〉과 같은 M形(M-Form)으로 불리는 分權化되고 여러 支部를 가진 企業型(decentralized, multidivisional firm)이 있다. 이는 기업이 수직·수평적 결합을 통해서 여러 지역 및 사업을 관장하게 될 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支部(division)를 설립한 형태이다. 각 지부는 자체적으로 판매,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는 부서

〈表 2〉 資産에 따른 美國 200대 企業의 産業別 分布, 1917-1988

그룹	산업	1917	1930	1948	1973	1988
20	식료품	29	31	27	22	18
21	담배	6	5	5	3	3
22	섬유	6	4	8	3	2
23	의복	3	0	0	0	1
24	목재	3	4	2	3	7
25	가구	0	1	1	0	1
26	제지	5	8	6	10	9
27	출판 및 인쇄	2	2	2	1	9
28	화학	20	20	23	28	40
29	석유	22	26	22	26	18
30	고무	5	5	5	5	1
31	가죽	4	2	2	0	0
32	석재, 점토 및 유리	5	8	6	8	6
33	1차금속	31	23	23	18	10
34	조립금속	11	10	6	4	5
35	기계	17	19	23	13	13
36	전기 기계	5	5	7	15	21
37	운수 장비	24	23	29	22	20
38	정밀 기기	1	2	1	2	4
39	기타 제조	1	2	2	1	1
-	거대 복합 기업	0	0	0	16	11
	총계	200	200	200	200	200

資料: Chandler and Hikino(1997, p. 40).

를 두어 이론상 독립된 기업처럼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통제한다. 이를 통해 상급경영자들은 일상적 업무로부터 벗어나 기업 전체의 장기계획이나 각 지부에 대한 자원배분과 같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각 형태의 기업조직은 단선적으로 발전해 온 것도 아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혼재해 있었지만, 근대적 대기업의 출현은 일반적으로 U형 및 M형 조직의 확산을 가져왔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특히 지리적인 확대나 인건업종으로의 다각화가 나타난 경우에는 M형 기업의 형태가 두드러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근대적 대기업의 관료제적인 인사조직은 경영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을 통해 대기업들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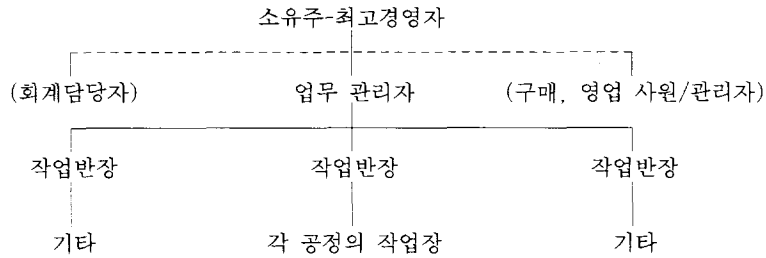
〈表 3〉規模 순으로 分類한 世界 500대 企業의 産業別 分布

SIC	산업	1962	1993
20	식료품	53	47
208	음료	10	16
21	담배	9	5
22	섬유	24	8
23	의복	0	2
24	목재	0	0
25	가구	0	0
26	제지	22	23
27	인쇄 및 출판	5	12
28	화학	36	53
283	의약	23	26
29	석유	36	48
30	고무	9	11
31	가죽	0	0
32	석재, 점토 및 유리	14	21
33	1차금속	79	39
34	조립금속 제품	10	8
35	비전기 기계	39	26
357	사무용·컴퓨터 기기	9	18
36	전기 기계	44	39
37	운수 장비	62	59
38	정밀 기기	1	10
39	기타 제조	11	4
—	거대 복합 기업	0	12
—	다각화 그룹	1	13
	총계	497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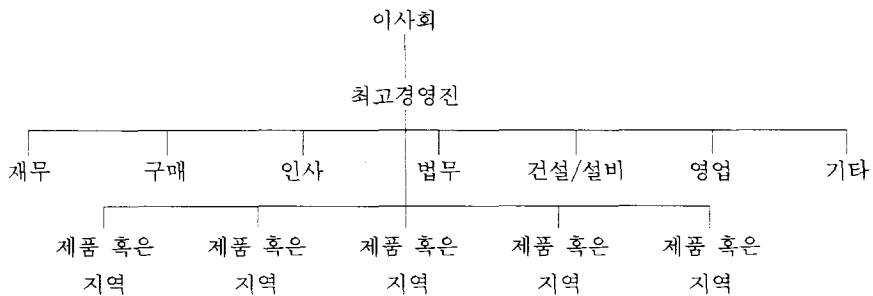
資料: Chandler and Hikono(1997, p. 51).

체계를 발전시켰다. 19세기 말까지 작업장의 조직과 운영은 일반적으로 ‘熟練工 統制 (craft control)’ 라고 불리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는 作業班長 (foremen) 등으로 불리는 관리직숙련공에 의해 생산직 노동자의 고용, 해고, 임금, 작업 계획 등이 결정되는 방식이다.⁽⁴⁾ 또한 勞動市場은 공장간, 지역간 노동의 이동성이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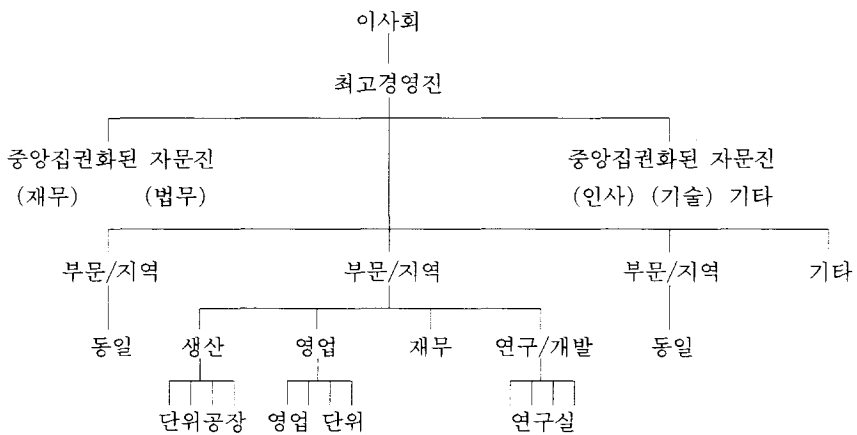
(4) 미국의 경우는 근대적 인사관리조직의 출현이 영국에 비해 빨랐던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그림 1〉 所有主經營者型 企業



〈그림 2〉 中央集權的이고 機能的인 部署를 둔 企業(U形)



〈그림 3〉 分權化된 多部署型 企業(M形)

資料: Schmitz(1993)

경우 작업장의 통제가 “shop steward”로 불리는 작업반장에게 맡겨진 관행은 20세기 초를 통해서도 지속되었다[Lazonick(1994)].

심하고, 단기적 고용관계가 주종을 이루는 現物市場(spot market)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인사관리와 작업조직이 언제, 어떻게 변모하게 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있지만 적어도 1940년대까지는 오늘날의 대기업들에게서 발견되는 고도로 정비된 인사관리체계와 내부승진에 의해 인력을 수급하는 內部勞動市場이 형성되었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⁵⁾ 늦어도 이 시기부터 대기업들은 인사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신규채용, 승진의 결정을 체계적인 인사고과에 의해 수행하게 되었으며, 개인적인 근무평정과 연공서열을 반영한 복잡한 임금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이것이 기업전체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3. 美國 大企業의 形成要因: 市場과 技術

거대기업의 형성요인에 대한 가장 단순한 설명은 규모의 확대에 따른 독점력의 획득과 이에 기초한 독점이윤의 추구일 것이다. 그러나 독점이윤의 유인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것이므로 왜 근대적 대기업이 19세기 후반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는지, 왜 대기업의 형성 시기와 패턴에 있어서 국가 간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장에서는 먼저 현재까지 등장한 대기업 등장요인에 관한 가설 가운데 가장 타당하고 영향력 있는 연구로 평가되는 알프레드 찬들러(Alfred D. Chandler)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미국 대기업의 형성요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찬들러의 가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근대적 대기업의 등장은 “市場과 技術의 변화에 대한 조직상의 대응”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먼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시장의 통합, 大量流通의 출현, 大量生産의 출현, 대량생산과 대량분배의 결합에 의한 선도기업의 출현, 규모와 범위의 경제 실현을 통한 기업규모의 확대 등을 거치며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자.⁽⁶⁾

(5) 현재로서 가장 전통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 Jacoby(1985)의 연구는 1930년대와 1940년대를 통해서 미국의 관료제적인 인사조직과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숙련공통제의 쇠퇴와 내부노동시장 형성의 시기를 좀 더 앞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Lazonic(1990)은 19세기 말 이후 고용주들이 숙련공통제의 분쇄를 위해 숙련 대체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기존의 작업반장들은 감독관, 중간경영자, 엔지니어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했으며, 복지자본주의적인 노사정책을 도입했다고 보았다. 그 결과, 1910-20년대를 통해서, 고용관계가 크게 안정화되고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이직률(turn-over rate)이 감소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Sundstrom(1988)과 Carter and Suvoca(1990)는 기업내부의 훈련프로그램 도입, 긴 평균근속년수 등을 증거로 이미 19세기 말에 근대적인 내부노동시장이 존재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반론은 Jacoby and Sharma(1992)를 참고할 것.

3.1. 大量流通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를 통해서 미국의 시장은 지리적으로 통합되며 크게 확대되었다. 먼저 시장규모의 기본적인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는 1850년 2300만 명에서 1913년 9700만 명으로 4배나 성장했고, 구매력의 지표인 1인당 GDP도 1870년 201달러에서 1913년 477달러로 빠르게 증가했다. 여기에 덧붙여 19세기를 통한 운하와 철도의 건설에 힘입어 광활한 미국의 여러 지역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전신 및 전화의 도입과 확산으로 19세기 후반까지는 기본적인 교통통신상의 기반구조가 확충되었다. 이와 같은 시장의 확대는 효율성이 높은 소수의 대기업이 광대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대량유통과 대량생산의 유인을 낳았다. 대량유통의 선발주자는 전통적인 유통업자였던 大都賣商이었다. 시장의 성장에 따른 대량유통의 잠재적 이익이 커지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대량의 물품이 보다 안전하게 운송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과거에는 위험의 회피를 위해 수수료를 받고 생산자와 소매상들을 연결해 주던 도매상들이 자기 책임 하에 구매와 판매를 담당하는 專業都賣商(jobber)으로 전환되었다. 이들은 국내와 해외의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구매망과 농촌과 도시지역의 소매상을 포괄하는 판매망을 조직하며 성장했으며, 1860년대 말까지는 대부분의 소비재 유통을 장악하였다.

대량유통의 새로운 담당자들은 소비 및 생산의 변화와 함께, 유통과정의 양극단, 즉 소매상과 생산자로부터 출현하였다. 먼저 1870년대부터는 대규모의 소매상들이 출현하여 제조업체들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 첫째, 19세기 말을 통한 도시화의 진전은 좁은 지역 내에 집중적인 수요를 필요로 하는 백화점의 설립을 가져왔다. 시카고의 마샬 필드(Marshall Field)처럼 도매업자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매장을 개설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메이시(Rowland Macy)와 같이 의류나 잡화를 판매하던 소매상이 가구, 보석 등의 품목을 추가함으로써 백화점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었다. 두 번째 형태인 통신판매점은 생산자와의 직접접촉을 통해 상품을 확보하고 안내서를 배부하여 우편으로 주문을 받는 방식의 유통업이었으며, 우편을 이용한다는 특징 때문에 농촌의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1890년대에 부상한 시어스(Sears Roebuck & Company)가

(6) 이 장에 제시된 미국 근대적 대기업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반적 서술은 Chandler(1962, 1977, 1990)에 크게 의존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국문으로 된 문헌연구논문이 있지만[양동휴(1994, 2장)], 논문의 완결도를 높이고 기존의 서술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첨부하였다.

通信販賣店의 대표적인 예이다. 시어스는 구매망의 건설뿐만 아니라 직접 공장을 건설하여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끝으로 連鎖店(chain store)은 공급자로부터의 직접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전략을 이용하여 성장하였으며, 대도시나 농촌지역보다는 소읍, 소도시, 대도시의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특히 1920년대 자동차의 보급에 힘입은 교외지역의 성장은 연쇄점의 확산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였다.

3.2. 大量生産과 大量流通의 結合

마지막으로 대량생산시스템의 발전과 새로운 제품들의 출현은 생산자들로 하여금 직접 유통망을 건설하게 만드는 계기를 가져왔다. 찰들러는 이와 같은 생산과 분배의 결합을 통하여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의 선구적인 근대적 대기업들이 출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소위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19세기 후반의 기술진보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연속공정기계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계, 화학, 전기 등 새로운 산업들이 성장했고 그 부산물로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담배, 성냥, 비누, 제분, 통조림 제조에는 연속공정기계가 도입되었고 정유산업에 있어서는 1870년대 로커펠러(John D. Rockefeller)의 공장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파이프라인과 콘베어벨트를 이용한 연속·다단계 공정이 도입되었다. 금속산업에서는 1870년대에 베세머(Bessemer)製鋼法, 1880년대에는 平爐法(open-hearth process)이 도입되어 생산성이 제고되었다. 아울러 이 기간을 통해 科學的인 經營(scientific management) 운동을 통한 기업효율성의 제고 노력이 진행되기도 했다.

생산기술과 제품의 성격에 발생한 일련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유통망에 의한 제품의 분배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생산자들이 직접 유통망을 건설하게 되었다. 생산자들에 의한 유통망의 건설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연속공정기계를 이용해 대량생산에 돌입한 권련, 성냥, 제분, 통조림제품, 사진필름 등의 산업이다. 이 부문의 기업들은 대규모의 수요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량의 생산물을 처리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판로의 개척과 광고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1881년 듀크(Duke)사는 단 두 대의 본삭(Bonsack)기계로 하루 12만 개피의 권련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도시에 판매사무소를 개설하여 광고 및 판매업무를 관장하게 했으며, 외판원으로 하여금도·소매상을 방문하여 주문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주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동부의 담배재배지역에 직접 원료구매망을 조직하여 원가절감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생산자에 의한 유통망 건설이 두드러졌던 또 다른 부문은 고가의 복잡한 기계를 생산

하는 산업이었다. 이 유형에는 재봉틀, 농기계, 사무용기계, 자전거 등의 耐久消費財와 엘리베이터, 펌프, 보일러, 인쇄기, 전동기계 및 장비 등의 資本財 산업이 포함된다. 이 부문의 기업들은 새로운 상품을 취급했던 만큼 적극적인 판로의 개척과 광고가 필요했으며, 복잡한 부품을 교환해 주고 고장제품을 수리해 주는 것과 같은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해야 했으므로 할부판매 등의 소비자 금융이 요구되었다. 기존의 유통망으로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할 수 없었던 기업들은 직접 獨占販賣權을 가진 小賣業者(franchise)를 선정하여, 이들을 훈련시키고 상품, 자금, 예비적 부분품과 부속품, 그리고 수리를 담당할 기술자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패성 식품을 생산하는 산업도 생산자에 의한 유통망 결합이 이루어진 대표적 산업 가운데 하나이다. 뉴잉글랜드의 식육도매업자였던 구스타프 스위프트(Gustavus Swift)의 전략은 이 유형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1870년대까지 식육도매업의 일반적인 형태는 중서부의 소들을 산채로 동부로 운송하여 도살한 다음, 동부의 대도시에 식육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1870년대 말에 냉장차가 개발된 이후, 스위프트는 도살업과 육류포장업을 시카고로 집중시키고 여기서 포장된 식육을 동부의 대도시로 운송할 경우 가축중량의 60%에 달하는 버리는 부분에 대한 운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착안하게 된다. 그런데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효율적인 판매망을 건설하여 식육이 부패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운송하는 것이었다. 스위프트는 1880년대를 통해 전국의 주요 도시에 지점을 건설하고 여기에 냉장창고, 판매사무소, 소매점으로 쇠고기를 운반할 인원과 장비를 갖추어 놓았다. 이후에는 후방결합에 나서서 정육공장을 건설하고 가축수용장을 매입하기도 하였다. 결국 다른 식육도매업자들도 스위프트의 전략을 따르기 시작했으며, 과일, 맥주와 같은 다른 부패성 상품의 유통업에도 유사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직적 통합을 통한 대기업의 형성은 Coase(1937)의 企業理論에 따르면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한 內部化(internalization)의 유인이 실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Williamson(1975, 1985, 1986)은 이를 정치화하여 19세기 후반 근대적인 대기업의 성장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인은 시장을 통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첫째는 경제주체의 制限的 合理性(bounded rationality)이다. 이는 미시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합리적인 인간의 가정과는 달리 개인 혹은 기업이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모든 시장의 시그널을 감시하고 계약의 모든 세부적인 경우를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개념이다. 둘째는 시장에서의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는 機會主義(opportunism)의 문제이다. 마지막 요인은 財産特

殊性(asset specificity)으로, 이는 생산요소들의 용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특정한 목적에 한정되어 있어서 사정의 변화에 따른 완전한 자원의 재배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말을 통해 철도 및 기타 자본집약적인 대량생산산업이 출현하여 고정비용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는 재산특수성의 증가를 통해 시장을 통한 거래의 비용을 증가시켰다. 반면 시장의 확대와 통합은 거래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거래의 패턴을 표준화·정기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장거래의 내부화에 소요되는 투자의 평균비용은 감소하게 되었다. Williamson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들이 기업의 수직적 통합을 통한 '보이는 손'의 건설을 가져온 요인이라는 것이다.

3.3. 企業合竝運動

19세기 후반의 선도적인 근대적 대기업 형성은 주로 생산설비, 유통조직, 경영조직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에 기초한 內部的 成長(internal growth)에 의해 이루어졌다. 반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기업들간의 합병에 의한 거대기업의 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1898년부터 1902년 사이에 일어난 소위 제1차 企業合竝運動(merger movement)은 수많은 기업들의 합병을 통해 거대기업의 형성을 가속화시켰고, 그 결과 여러 산업의 시장구조가 독과점적으로 변모하였다. 이 기간 동안 약 1800개의 기업이 합병을 통해 사라졌고, 합병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40%, 삼분의 일이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던 사실은 기업합병운동의 규모와 산업구조에 대한 영향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 기업합병운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제시된 바 있다. 첫 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1890년대의 불황에 직면한 기업들의 競爭回避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1880년대를 통해 급격히 성장한 자본집약적인 산업은 1890년대의 불황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던 만큼 합병을 통한 경쟁회피의 유인이 컸다[Lamoreaux(1985)]. 경쟁회피의 노력이 기업결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은 부분적으로 미국 反獨占法의 성격에 기인한다는 견해도 있다. 1890년에 제정된 셔먼(Sherman) 반독점법은 그 이전에 널리 이용되던 카르텔이나 트러스트와 같이 느슨한 형태의 결합을 금지하였다. 반면 1880년대를 통한 기업법의 변화로 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셔먼법은 1903년까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식적인 기업합병을 경쟁회피의 주된 수단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株式市場의 성장도 기업합병운동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18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증권시장은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企業情報의 공개가 개선되고, 전문화된 金融仲介機關들이 등장하여 투자가들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아울러 근대적인 대기업의 출현은 산업부문 기업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

에는 지나치게 높은 위험으로 인해 거래되지 않던 산업부문 주식들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다[Navin and Sears(1955), Baskin and Miranti(1997)]. 1897년부터는 다우존스(Dow Jones)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했고, 一般株(common stocks)의 보유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발전하였다[Graham and Dodd(1934)]. 주식시장의 발달과 산업주의 증시진입은 산업부문 기업들의 자본동원능력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기업합병의 여건을 호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덧붙여 기업합병 이후의 주가의 상승에 따른 투기이익을 노린 프로모터들의 합병추진이 기업합병운동의 원인으로 제시되기도 한다[Nelson(1959)].

기업합병운동이 미국의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Lamoreaux(1985)에 따르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합병기업들이 先導企業戰略(dominant-firm strategy)에 기초하여 상당정도 시장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반면 Chandler(1977)는 기업합병 자체가 산업구조의 변화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합병 이후 垂直的인 統合이나 中央集權的인 경영조직의 건설에 의한 효율성의 제고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 합병기업은 대부분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문제는 前後方 統合을 한 경우에만 합병기업이 성공했던 것이 통합에 의한 효율성의 제고 때문인지 아니면 원료의 독점, 유통망의 건설 등 진입장벽의 설치에 의한 독점적 지위의 구축 때문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Lamoreaux(1985)]. 이 문제는 결국 합병기업의 비용과 가격구조를 면밀히 분석해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4. 規模와 範圍의 經濟

20세기 초까지 수직적 통합과 관료제적인 경영조직의 건설을 기초로 등장한 근대적 대기업들은 산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통해 성장하였다. 생산기술에 있어서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하는 산업의 경우, 생산단위의 확대와 해외진출을 통해 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생산기술, 유통망, 원료 등에 있어서 範圍의 經濟(economies of scope)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품다각화를 통한 多品種企業으로 성장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속화되고 경영조직은 더욱 복잡해졌다.

생산기술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생산단위의 확대가 나타났던 대표적인 산업은 석유와 철강산업이었다. 예컨대 로커펠러(John D. Rockefeller)의 스탠더드 석유회사(Standard Oil Company)는 1870년대를 통해 막대한 시설투자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철도회사와의 교섭을 통한 비용절감을 통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였다. 이후 트러스트를 결성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한편, 새로운 유전의 개발, 파이프라인의 건설 등의 후방

통합과 해외 판매망의 건설을 통해 독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1911년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의해 해체되기 전까지 스탠더드오일의 시장점유율은 90%에 달했다.

식품, 소비용 화학, 담배 등의 商標包裝消費財(branded, packaged consumer goods)의 경우, 19세기 말에 출현한 선도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와 상품의 다각화를 통하여 성장하였다. 海外投資는 관세 및 무역장벽의 회피, 운송 및 재고비용의 절감, 현지 선호에 대한 신속적인 적응을 목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Quaker Oats, Heinz, Coca-Cola, American Cotton Oil 등이 해외 공장을 건설하였다. 이 산업들은 효율적인 공장규모가 비교적 작고 국가별로 제품에 대한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의 지사가 한 국가를 담당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해외지사는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다. 商品의 多角化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식품의 경우에는 기술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기존의 유통 및 판매망이나 유사한 원료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기존설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품다각화가 이루어졌다. 반면 기술적으로 보다 복잡한 소비용 화학, 특히 제약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통한 관련상품 및 신상품의 개발과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산업용 화학산업의 경우에는 1880년에서 1910년 사이에 듀폰(Du Pont), 제너럴 케미컬(General Chemicals),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 다우(Dow) 등의 선도기업들이 출현하였다. 이 산업에 있어서는 해외투자에 비해 신상품의 개발을 통한 다각화가 더욱 중요했다. 듀폰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화약이 주력제품이었다가 이후 암모니아, 가솔린 첨가제, 냉각제, 합성섬유, 페인트, 플라스틱, 사진용품 등으로 생산제품의 종류를 확대해 나갔다.

기계산업은 대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유럽시장 공략의 선두에 섰던 소위 “美國의 侵略(American Invasion)”의 대표주자였다. 그러나 같은 기계산업 내에서도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성장의 경로는 달랐다. 가장 일찍이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의 결합을 통해 근대적 대기업의 선두주자들이 출현했던 非電氣機械(non-electric machinery)산업의 경우에는 이미 1880년대를 통해 기업들의 광범위한 해외진출이 이루어졌다. 싱거(Singer) 재봉틀, 레밍턴(Remington) 타자기, 맥코믹(McCormic) 농기계, 오티스(Otis) 엘리베이터 등이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이 산업의 경우 효율적인 공장규모가 비교적 컸기 때문에 소수의 해외공장이 보다 넓은 지역을 담당하였다. 반면 제품다각화는 기존 제품과 밀접하게 관련된 신제품에 제한되었다.

運送裝備(transportation equipment)산업에 있어서 自動車産業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조선, 철도차량을 밀어내고 미국의 가장 큰 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세계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여 1929년까지는 전 세계 자동차의 85%를 생산하게 되었다. 포드

(Ford) 자동차는 연속자동공정과 제품특수적인 표준적 부품의 도입에 기초한 대량생산체제의 건설과 국제적인 유통 및 판매조직의 건설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선두주자로 부상하였다. 1921년에는 56%의 국내 승용차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직접투자를 통하여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후 헨리 포드의 독단적인 경영과 경영조직의 파괴, 늦은 신모형의 개발, 지나친 수직적 통합으로 인한 경직성 등으로 인해 상대적인 쇠퇴를 경험했으며, 특히 1930년대의 大恐慌에 의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1908년 창립된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는 알프레드 슬로안(Alfred Sloan, Jr.)이 최고경영자로 취임한 후 빠르게 성장하여, 1921년 12%이던 시장점유율이 1929년까지는 32%로 증가하며 포드사를 추월하였다. 해외에서는 자사의 공장을 건설함과 함께 현지업체를 매입하는 전략을 이용하였으며, 저가제품에 주력하는 한편 중간가격제품의 비용저하를 통해 대공황의 충격을 비교적 잘 넘겼다. 크라이슬러(Crysler)도 눈부신 약진을 하여 1940년까지는 포드사를 제치고 GM에 이은 2위 업체로 도약하였다. 자동차산업에서는 부품생산을 제외하고는 범위의 경계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적었다. GM이 비교적 활발한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항공산업에 진출하기도 했으나 제한적인 것이었다.

電氣 및 電子 裝備(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산업에 있어서는 해외진출과 제품다각화가 모두 중요했다. 이 부문에서는 1892년 톰슨-휴스턴(Thomson-Houston)과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Edison General Electric)의 합병으로 출현한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과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가 양대 선도기업이었고, 1919년 설립된 RCA가 후발주자로 성장하였다. 합병 전의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은 특허권의 라이선스에 주력한 반면 톰슨-휴스턴은 해외투자에 힘을 기울였다. 합병 후 GE의 해외생산은 톰슨-휴스턴의 생산설비 및 조직에 크게 의존하였다. 기계산업에 비교해서 전기 및 전자장비 산업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들이 협상과 계약에 의해 시장점유율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했다. 전기 및 전자산업에 있어서의 研究開發投資에 의한 제품다각화는 화학산업에 버금갈 만큼 활발했으며 해외진출만큼이나 중요한 기업성장의 경로였다. 예컨대 GE는 전선의 케이블에 이용될 새로운 합금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금속산업으로 진출했고, 전선 피복에 쓰이는 단열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화학산업에 뛰어들어 Du Pont의 경쟁업체가 되었으며, 진공관에 대한 연구는 엑스레이(X-ray) 기술의 개발 및 이에 따른 의료산업진출로 이어졌다.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해외진출과 제품다각화는 기업의 규모확대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所有構造와 經營組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여러 국가와 다양한 산업의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고 복잡한 정보와 전문적 지식

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만큼 專門經營陣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또한 여러 제품의 생산 및 해외투자는 부서의 분화를 가져오고 이들의 조정과 통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생산품의 개발계획이나 장기전망의 수립도 중요해졌다. 이상의 변화는 복잡한 M형 기업의 확산과 추가적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미국의 어떤 대기업에서도 사내 이사진 가운데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대기업들에 있어서 신상품의 개발을 위한 R&D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 것도 이 시기였다.⁽⁷⁾

3.5. 比較史的 眺望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근대적 대기업의 성격과 형성과정은 다른 선진국들과는 상당히 구분되는 면이 있다.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경험했고 19세기 말 미국과 독일에게 추월당하기 전까지 세계 최대의 공업국이었던 영국은 기업의 규모가 미국에 비해 작았고 경영조직의 발전이 미약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더디게 진행되어 20세기 초에도 소유주의 가족이 경영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들은 공식적인 결합보다는 전통적인 카르텔에 의존하여 경쟁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産業合理化의 일환으로 企業合竝이 일어난 경우에도 참여기업들이 경영통제권에 집착하여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경영조직의 건설에 실패하였다.

첸들러의 견해에 따르면 영국 기업들에게서 발견되는 組織的인 力量의 미약함은 영국 산업의 경쟁력을 손상시킨 중요한 원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대기업들과 같이 規模의 經濟를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範圍의 經濟를 기반으로 관련된 제품생산으로 다각화한 기업이 별로 없었다. 미국의 전문경영인들이 장기적인 이윤 및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한 데 비해 영국의 소유주들은 안정적인 소득에 집착하여 이윤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

(7) 19세기 초반까지는 주로 개인 발명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특허 및 라이선스 시장의 기능을 통해 확산되어 오던 신기술의 개발과 발명은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기업내부 연구개발투자(in-house R&D) 위주로 전환하게 된다[Sokoloff(1988), Sokoloff and Kahn(1990), Lamoreaux and Sokoloff(1999)]. 이는 대기업의 형성과 이들에 의한 다각화의 수요 이외에도 기술이 복잡해지고 소요자금의 규모가 커져서 개인적인 연구개발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과,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종류의 정보 및 지식이 증가했다는 것에 의해 설명된다. 초기의 대기업들은 내부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대학과의 산학협동을 통한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수행했으며, 외부 기술의 검색과 라이선스를 통한 흡수노력도 병행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 이후에는 반독점법의 개정에 의해 지적재산권이 보다 강력하게 보호되면서 외부기술의 흡수에 제약이 생겼고, 정부의 대학연구지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학협동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기업내부 연구개발투자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Mowery and Rosenberg(1989)].

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만한 충분한 초기투자에 실패하여, 식품, 기계, 전기, 철강, 자동차 등에 있어서 미국과 독일의 선도기업들에게 유럽은 물론 영국 국내 시장까지 내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⁸⁾

미국 대기업에 비교한 英國 企業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설명된다. 첫째, 영국은 좁은 국토면적에 인구밀도가 높았고 일찍부터 유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었으며 기존의 도·소매상들이 잘 단결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에서와 같이 제조업자들이 스스로 유통망을 건설할 이유도 능력도 없었다. 둘째, 영국은 家族所有의 전통이 미국보다 강해서 소유주가 경영권을 통제하려는 강도가 높았으며, 그 결과로 영국 대기업의 소유집중도가 미국보다 훨씬 높았다. 셋째, 영국은 미국에 비해 기술 및 경영 교육을 등한시하여 우수한 전문경영인의 공급에 애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넷째, 카르텔의 결성이 용인되고 심지어 그 계약의 강제 이행이 법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보다 강력한 기업결합 및 통일적인 경영조직 건설의 유인이 적었다.

미국과 함께 후발국가로 출발한 독일은 1914년까지는 영국을 제치고 유럽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였다. 찬들러는 이와 같은 獨逸産業의 결정적인 성공요인을 企業家의 成功(entrepreneurial success)으로 본다. 즉 독일기업들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전문경영인을 채용하여 경영조직을 건설하고, 생산시설에 대한 대규모의 초기투자를 수행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였으며, R&D 투자를 통해 제품다각화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상의 역량을 기초로 하여 화학, 중기계, 철강산업에서는 영국을 국제시장에서 내몰았고, 전기기계산업에서는 국제시장을 나누어 가졌으며, 고무, 레이온, 화약, 합성알칼리 등의 산업에서는 국제적인 과점을 형성하였다. 다만 대량생산 경기계 및 식품, 담배와 같은 상표포장소비재 등에서만 미국기업에 열세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대기업들은 영국보다는 미국기업들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독일과 영국기업의 차이를 낳은 요인으로는 영국에 비해 産業教育의 전통이 강했다는 것과 市場統合의 효과가 컸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독일의 경우, 유통망이 발달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적었으며, 19세기 후반에 통일될 때까지 시장의 政治的·

(8) 근래에는 이와 같은 찬들러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반박하는 사례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Lloyd-Jones and Lewis(1994)에 따르면 셰필드(Sheffield) 지방의 금속산업의 주류였던 소규모의 가족기업들은 상표에 의해 제품을 차별화하고, 고가제품의 생산에 주력하였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에 의해 소비자의 필요와 기호에 맞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1차대전 전까지 미국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적인 반례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까지 대량생산업종에서 영국 산업의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行政的 統合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대륙에 위치했던 만큼 잠재적인 시장의 규모는 영국에 비해 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치적인 통일에 따른 시장통합의 경제적인 효과는 미국에 비해서는 작았을지 모르지만 영국에 비해서는 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반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대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달랐다. 첫째, 미국에 비해 대기업들이 資本財의 생산에 집중되어 있었다. 둘째, 미국 대기업들이 치열한 寡占的 競爭을 했던 데 비해서 독일 기업들은 談話과 協力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카르텔과 기타 담합행위를 용인하고 보호하는 독일의 사법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산업화 및 대기업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산업금융에 대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 대규모 은행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영국이나 미국보다 대학교육이 더 일찍 발달했으며, 특히 技術 및 經營教育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끝으로 기업소유주의 가족에 의한 경영의 장악은 미국보다 오래 지속되었다.⁽⁹⁾

4. 美國 大企業의 形成要因: 資本市場 · 勞動市場 · 政府規制

위의 장에서 개관한 미국 근대적 대기업의 형성요인에 대한 찬들러의 견해는 관련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이지만, 학계의 전적인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좌파학자들로부터는 지나치게 親企業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데올로기적인 면을 떠나서도 대기업 형성에 있어서 적지 않은 중요성을 지니는 요인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찬들러의 『The Scale and Scope』에 대한 Parker(1991)의 서평에 따르면, 찬들러의 연구는 法, 制度, 政府의 영향을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특히 1940년 이후의 시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심각한 약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조직의 결정에 있어서 기술이 주연을 맡고 있고 상대가격의 역할은 무시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勞動問題와 資本市場의 영향이 무시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기업의 출현이 노동의 만족도, 교육, 노동력구성 등에 미친 영향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의 국제적 비교에 있어서 상이한 기업-노동 관계의 역할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투자은행의 성장과 주식시장의 발달과 같은 자본시장의 영향이

(9) 영국과 독일 대기업들의 특징과 성과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Chandler(1990, 3, 4부), Hannah(1983)를 참고할 것. 찬들러와 그 동료들에 의한 대기업의 비교사적 연구는 근래에 와서는 선진국의 범위를 넘어서서 더 많은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른 유럽의 후발국가들과 남미 및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기업의 특징과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Chandler, Amatori, and Hikino(1997)를 참고할 것.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 장에서는 이상의 요인들이 미국 기업조직 변화에 미친 영향을 개관함으로써 앞서 제시한 채널러 가설이 지닌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하겠다.⁽¹⁰⁾

4.1. 資本市場의 影響

널리 알려진 대로 금융의 기능은 유희자본을 동원하여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성장이 빠른 부문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金融部門이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대해 지니는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다[Gershenkron(1962), Cameron(1967, 1972)]. 근대적 대기업을 형성도 막대한 자본이 특정 부문의 특정 기업으로 집중되는 현상이었던 만큼, 금융부문의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금융부문의 발달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대기업을 출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본동원능력을 개선해준다. 19세기에 대기업을 처음 출현했던 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산업이었고, 대기업을 조직과 전략도 새로운 것이었던 만큼 공신력 있는 金融仲介機關의 적극적인 개입은 대기업 형성에 필요한 자본동원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 不完全한 資本市場은 인맥이나 외형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을 통하여 특정기업이 다른 잠재적인 기업들의 회생 위에 산업전체를 압도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금융부문의 영향은 자본시장의 발전이 기업의 자본동원능력을 높여서 기업규모의 확대를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貨幣市場은 지역적인 이자율의 수렴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19세기 후반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합되었다.⁽¹¹⁾ 이와 같은 화폐시장의 통합은 보다 빠르고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가능케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¹²⁾ 19세기를 통해 미국의 證券市場도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운하와 철도의 건설, 그리고 남북전쟁 중의 전비조달이 가져온 막대한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증권시장은 규모와 기능 면에서 크게 발전하였고, 뉴욕의 월스트리트는 세계적인

(10) 채널러의 경영사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평가에 관해서는 John(1997)을 보라.

(11) 미국 자본시장의 통합시기와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자본시장 통합의 실증적 증거를 가장 먼저 제시한 Davis(1965)는 상업어음(commercial paper) 시장의 확산에 의해 19세기 말부터 시장이 통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James(1976)는 시기적으로는 19세기 말이었다는 데 동의하지만 통합의 원인은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법은행(state banks)의 증가 때문이었다고 보았다. Sylla(1969)는 1900년 이후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국법은행(national banks)의 증가가 자본시장의 통합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했다. Sushka and Barrett(1984)의 연구는 수요측면의 행태변화에 의해 남북전쟁 이후부터 시장이 통합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사이에 지역간 이자율의 수렴현상이 나타났던 사실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12) 미국남부는 20세기 초까지도 이와 같은 전국적인 자본시장의 통합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는 남부 제조업부문 기업들의 평균적인 규모가 북부에 비해 훨씬 작았던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Carlton and Coclanis(1989), 이철희(1990)].

금융중심지로 떠올랐다. 19세기 말까지 미국의 증권시장은 주로 연방 및 지방정부의 공채, 철도 및 기타 준공공적인 산업의 채권과 주식을 거래하였다. 새롭게 성장하던 산업부분의 증권은 높은 위험도로 인하여 공적인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산업부분의 선도적인 대기업들이 눈부신 성공을 통해서 공신력을 얻기 시작하고, 아직 미비하기는 했지만 기업의 회계 및 운영상의 정보의 공개가 그 전보다 개선되었으며, 과거에는 주로 철도부분의 증권을 취급하던 투자은행들이 산업부분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 결과 1890년대 이후부터 산업부분의 회사채와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였다(Navin and Sears(1955), Baskin and Miranti(1997)). 이와 같은 자본시장의 성장은 적어도 1898-1902년의 기업합병운동 시기부터는 대규모의 자본동원에 기초한 기업의 내부적 성장과 기업결합에 의한 규모의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金融 및 産業部門의 긴밀한 연관관계가 금융부분의 효율성 및 안정성과 및 산업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¹³⁾ 반면 금융과 산업의 연계가 大企業의 형성을 통해 産業集中을 가져온다는 견해는 동시대인들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대체로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견해는 특히 영국의 금융부분이 산업부분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19세기 말-20세기 초 영국산업의 쇠퇴를 가져왔다는 주장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이 시기 영국 금융부분에 대한 비판자들은 런던을 중심으로 한 주요은행들이 단기대부에 주력하는 등 보수적이고 위험 기피적인 영업을 했고, 과다한 해외투자를 했으며, 산업부분의 이해와는 상반되는 정책, 예컨대 환율의 안정 및 고금리 정책을 관철하였다고 주장하였다(Kennedy(1987), Collins(1991)). 이는 대규모 겸업은행들이 주식의 보유나 이사진의 파견을 통해 산업부분의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의 경우와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¹⁴⁾

미국은 독일의 사정에는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영국보다는 금융과 산업의 연관관계가 긴밀했고, 이것이 대기업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화 초기의 동북부 지방에서는 은행의 이사진이나 주주와 같은 內部者에 대한 貸出

(13)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Calomiris(1995)와 Fohlin(1999)을 볼 것.

(14)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영국 금융산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산업부분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공급부분의 제약 때문이 아니라 자본에 대한 수요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해석한다. 또한 해외투자는 기대수익률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영국자본시장에 실패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Edelstein(1982), Collins(1991)). 독일의 경우 은행에 의해 주도된 장기산업대출이 중화학공업에 대해 인위적으로 과다한 자원배분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성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다(Neuburger and Stokes(1975)).

(insider lending)의 관행을 통하여 높은 위험을 지닌 산업부문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Lamoreaux(1991)]. 투자은행들은 지분의 확보와 이사진의 파견을 통하여 생명보험회사, 상업은행 등의 금융기관, 철도회사 및 산업부문의 기업들을 통제하였다. 예컨대 모건(J. P. Morgan)의 투자은행은 20세기 초까지 최소한 10개의 철도회사와 세 개의 전차(street railway), 그리고 유나이티드 철강(United States Steel),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AT&T(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인터내셔널 하비스터(International Harvester), 웨스턴 유니온(Western Union) 등의 대기업들을 통제하고 있었다[Carosso(1970), 김남석(1999)]. 投資銀行들은 이와 같은 통제력을 기초로 기업에 대한 金融商談者 및 合併의 프로모터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대규모 투자은행들은 합병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들과 신디케이트(syndicate)를 조직하여 은행의 위험을 줄였으며, 기업에게는 필요자금의 빠른 조달, 신용과 평판의 개선, 발행주식에 대한 시장의 확대, 주식판매조건의 개선과 같은 이점을 제공하였다. 기업에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신력이 높은 투자은행들은 기업과 투자가 사이의 情報上的 非對稱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¹⁵⁾ 이와 같은 투자은행의 역할은 기업합병에 대한 대중 및 내부자의 평가를 높이고 합병의 비용을 낮추어 기업합병을 촉진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資本市場의 不完全性이 차별적인 자본의 배분을 통해 産業集中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있다. Davis(1966)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에 비해 기술, 산업구조, 지리적인 산업입지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여 대규모 자본동원의 필요성이 컸던 반면 자본시장의 발달은 영국에 비해 지체되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에게 있어서 자본동원능력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사적인 연줄에 의해 자금을 얻을 수 있었던 소수만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희생 위에 산업생산을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카네기(A. Carnegie)는 철에 대한 지식보다는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더 탁월했고, 육류포장업의 스위프트(G. Swift), 석유의 로커펠러(J. D. Rockefeller) 등도 은행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공적인 시장에서

(15) Ramirez(1993)는 모건과 연관된 기업과 그 밖의 기업들의 투자회귀분석을 통하여 모건가와 연관을 맺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있었음을 보임으로써 모건이 자신의 고객기업과 투자가 사이의 주인-대리인 문제와 정보상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모건이 투자한 회사들은 모건의 감시 하에 건설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이는 그 기업의 주식을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De Long(1990)의 실증적인 연구는 모건의 명성이 보통주 가격에 30%의 가치를 더했다고 보고하였다.

의 자본동원이 가능하여 자본동원능력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후발주자들도 비교적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 이 견해는 결론적으로 자본시장의 발달이 자금력에 따른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산업집중을 완화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주장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며, 자유로운 금융시장의 발달이 사회적·경제적 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최근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Rajan and Zingales(2003)). 그러나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말 영국의 경우 금융시장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에 대한 장기자금의 투자가 부진했다는 사실과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영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대기업 형성의 차이를 가져온 주된 요인은 資金의 供給側面, 즉 금융시장의 특성이 아니고 需要側面(기술, 시장, 산업의 성격 등)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4.2. 勞動市場의 影響

미국 노동시장의 성격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기업의 구조와 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찬들러가 근대적 대기업의 출현을 가져온 요인으로 지목한 資本集約的인 大量生産技術의 발달을 고려해 보자. 찬들러의 견해가 지니는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기술의 발전이 外生的·獨立的인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선택은 단지 과학적인 지식의 수준이나 기존의 기술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社會·經濟的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勞動市場 및 勞動運動의 성격도 그 중요한 요인이다. 영국과 미국의 생산기술의 차이는 이미 19세기 중반의 동시대인들에 의해 관찰되었으며 그러한 차이를 낳은 요인은 오랫동안 경제사학자들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문제의 핵심은 왜 미국은 일찍이 호환성 부품, 연속공정시스템 등에 의해 대표되는 자본집약적인 생산기술을 도입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Habakkuk(1962)]. 이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미국의 상대적인 노동력부족과 이에 따른 높은 노동비용을 자본집약적 기술채택의 원인으로 제시한다[Rothbarth(1946)]. 그러나 이 해석은 19세기의 대부분 기간을 통해서 미국의 자본비용(이자율)이 영국보다 높았으며 자본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Temin(1966)).⁽¹⁶⁾ 노동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해석은 자본집약적인 기술이 노동일반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희소했던 숙련공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견해이다 [Harley(1974)]. 최근에는 農業勞動市場의 특성을 가지고 미국이 영국에 비해 공장제 생산에 의한 선대제의 대체가 빨리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16) 이 수수께끼는 토지를 논의에 포함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즉 19세기의 미국은 토지로 대표되는 자원이 풍부한 대신 노동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경제였고, 이에 따라 노동과 자본 모두가 유입되었던 것이다[Fogel(1967), Summers and Clarke(1980)].

Sokoloff and Dollar(1997)에 따르면 영국의 농업은 곡물생산 위주여서 노동수요의 계절성이 심했다. 이 때문에 농한기에는 값싼 농촌유휴노동이 존재했으며, 농촌의 가내수공업은 이러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19세기 중엽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계절적인 유휴노동의 부재로 인해 일찍부터 공장제 생산이 제조업을 압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인사관리 및 임금정책도 순수하게 효율성 제고의 관점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노동시장의 사정과 노동운동의 강도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기업들은 20세기 초반을 통해 體系的인 人事管理組織과 內部勞動市場에 의해 대표되는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정착시켰다. Jacoby(1985)에 따르면 이 과정은 기업규모의 확대가 가져온 내부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 노조 및 정부의 압력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다. 기업의 인사조직과 고용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분수령이 되었던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전쟁은 노동공급의 부족을 가져왔고, 이는 노사분규의 증가, 노동통제의 어려움, 그리고 이직의 증가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전쟁 중의 조업중단을 막기 위해 노조에 유화정책을 쓰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조의 가입이 자유로워졌으며 임금 및 노동조건이 설정되어 전 산업에 강제되었다. 정부는 또한 노사분규를 막기 위해 人事管理의 도입을 기업들에게 권장하였고, 인사관리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대학에서 강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사관리부서를 둔 기업의 수와 인사관리자의 수가 1915년에서 1920년 사이 급증하였고, 각 지방의 인사관리자 협의회가 조직되었으며, 1919년에는 전국적인 조직(National Association of Employment Managers)이 설립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의 인사관리조직의 도입은 제한적이었으며 그나마 1920년대를 통해 노동공급의 상대적인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미국사회의 분위기가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정체 내지 퇴보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기업들의 인사관리 및 고용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1930년대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을 통해서였다. 정부는 구매력의 확보 및 실업률의 감소를 위해 최저임금 및 최장노동시간을 도입하였고, 노조의 결성과 단체교섭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1933년 이후 노조원이 급증하고 파업이 증가하였다. 노조가 결성된 기업에서는 노조의 압력에 밀려서,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노조의 설립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年功序列制度, 一時解雇制度(lay-off), 업무평가 및 人事考課制度, 공식적인 승진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노동공급의 부족과 산업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동배려정책을 낳았으며 그 결과 1945년까지 노조는 그 가

입력과 세력에 있어서 정점에 도달하였다.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사관리부서를 더욱 강화하고 内部勞動市場을 건설하였다. 이것은 체계적인 채용(채용시험), 인사관리, 업무의 단순화, 직업훈련, 내부승진, 업무평가에 입각한 임금의 결정, 해고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사유제시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 확대가 가져온 기업 내부적인 필요성에 정부 및 노조의 압력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압력이 결합되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관료제적인 인사관리가 정착되었다.

기업의 賃金政策이나 社內福祉制度도 노동시장의 여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소위 '福祉資本主義(welfare capitalism)' 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원복지제도의 출현이 1910년대에 활발하게 나타난 것은 이 시기에 나타난 노동수급부족, 이직률의 급증, 급진적인 노동운동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은 포드 자동차회사의 소위 '5달러 일당(five-dollar day)' 정책이다. 1914년 헨리 포드는 자격을 갖춘 자사의 노동자들에게 8시간 노동에 5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다. 당시 동종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9시간 노동에 2.34달러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는 매우 파격적인 개선이었다. Raff(1988)는 이와 같은 임금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설명들을 검토한 후, 이것이 산업의 평화를 사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당시에 큰 인기를 누렸던 Model-T의 판매증가로 막대한 이윤을 누리고 있던 포드사로서 가장 큰 위협은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으로 조업이 중단되는 것이었다. 특히 포드사는 막대한 고정자본을 투자하고 있었으므로 조업중단의 잠재적인 손실은 더욱 컸고 따라서 이윤의 일부를 배분하여 이를 막으려고 했다는 해석이 타당성을 갖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사관리 조직과 임금체계 이외에 企業年金의 도입[Quadagno(1988, Chapter 4), Ransom, Sutch, and Williamson(1993)]이나 평균적인 노동시간의 감소[Whaples(1990), Shiells(1990)]의 시기도 노동시장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3. 法과 政府規制

첼들러의 견해에 따르면 근대적인 대기업은 시장의 확대와 기술의 변화에 대한 조직상의 대응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시장의 형성을 지역간 通商障壁의 제거로 정의한다면 첼들러의 견해와는 반대로 근대적인 대기업의 형성이 시장통합의 전제조건이었다는 다소 상반된 주장이 있다. McCurdy(1978)에 따르면 1870년까지 미국의 각 주 사이에는 상당한 통상장벽이 존재하였다. 각 주정부는 과세, 인가, 검역 등에 있어서 다른 주의 업자를 차별함으로써 자기 지방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대기업들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중소상인들과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이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주간통상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정치

적인 로비와 법정투쟁을 벌였고, 이것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법적인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통합된 시장의 형성에 공헌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대기업이 법이나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환경자체를 변화시킨 사례를 보여준다. 기업이 처한 환경(시장과 기술)과 기업의 조직적 특성은 상호작용의 관계를 갖는다고 해석한다면, Chandler와 McCurdy의 견해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¹⁷⁾

법과 정부규제가 대기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경로는 역시 反獨占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정부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한 반독점법을 발전시킨 사례를 보여준다. 적어도 19세기 말까지도 미국의 기업정책은 자유방임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고 기업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간여하지 않았으나, 공공의 건강, 안전, 복지와 관련된 기업의 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은 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封建制나 協同主義(corporatism)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정치적 위계질서가 부재했으며, 대기업의 성장이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특수성은 19세기 말에 나타난 산업집중의 사회적인 폐해를 심각하게 부각시켰으며 유럽보다 철저한 반독점법의 출현을 가져왔다[Keller(1980)].

산업규제는 근대적 대기업이 가장 먼저 출현했던 철도산업에서 시작되었다.⁽¹⁸⁾ 1870년대 이전까지 철도에 대한 규제는 주·군(county) 지방정부에 맡겨져 있었다[Kanazawa(1994)]. 1870년대 이후 전국을 포괄하는 대규모 철도회사가 출현하고, 이들에 의한 가격차별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이루어진다. 1887년에는 州間通商法(Interstate Commerce Act)이 통과되어 요율차별을 조사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州間通商委員會(Interstate Commerce Committee)가 창설되었다.⁽¹⁹⁾ 이후 1903년 엘킨스법(Elkins Act)은 특정고객에 대한 리베이트를 금지하였고, 1906년의 헵번법(Hepburn Act)은 주간통상위원회에 요율설정의 권한을 주었으며, 1910년

(17) 면화거래소에 관한 Lipartito(1983)의 연구는 유통구조의 개선과 같은 제도적인 변화에 의해 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18) 철도산업의 규제이유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제시된 바 있다. 전통적인 견해는 독점적인 철도회사들의 횡포를 막아 대중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으로, 동시대의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피력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수정적인 견해로 등장한 이론은 철도규제가 특정이익집단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수정주의적 연구인 Kolko(1963, 1965)에 따르면 철도산업의 연방규제는 경쟁의 압력에 직면한 철도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제적인 설명에 따르면 철도는 국지적으로 자연독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경쟁균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Hovenkamp(1991)].

(19) 주간통상위원회의 철도규제와 그 성과의 해석은 양동휴(1994, 8장)에 정리되어 있다.

의 만-엘킨스법(Mann-Elkins Act)은 요율심사 및 기타 분쟁조정을 위한 법정의 설립을 명시하였다. 산업부문에 대한 연방규제는 1890년 셔먼反獨占法(Sherman Antitrust Act)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초기의 셔먼법은 그 조항의 모호한데다 행정적 조직이 아닌 사법부에 대한 전적인 의존 때문에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사법부는 1895년의 E. C. Knight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셔먼법을 제조업체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좌절시켰다.⁽²⁰⁾ 그러나 19세기 말까지 차츰 규제가 강화되어 利潤配分(pools), 트러스트(trust), 카르텔(cartel) 등이 불법으로 규제되었으며, 20세기 초에는 법무부에 셔먼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졌다. 한편 법원은 合理性原則(rule of reason)을 채택하여 기업의 규모나 시장점유율보다는 독점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 보다 신축적인 고려를 하게 된다. 이후 반독점 소송은 크게 증가하였고,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 아메리칸 토바코(American Tobacco)에 대한 반독점판결은 미국 반독점규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14년에는 클레이튼법(Clayton Act)과 聯邦通商委員會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 제정되어 주간 통상법과 셔먼법에 의해 시작된 초기 규제시스템이 완성되었다.⁽²¹⁾

미국의 반독점법의 성격은 대기업 형성의 방식과 시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셔먼법은 카르텔과 트러스트와 같이 비교적 느슨한 결합을 금지한 반면 持株會社와 같이 강력한 결합은 용인하였다. 카르텔의 금지는 소규모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기업들이 공식적인 합병을 통해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경쟁을 제한할 유인을 갖게 하였으며 이것은 1898년-1902년 사이의 기업합병운동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1904년의 Northern Securities 판결은 지주회사가 셔먼법의 적용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예고하였고, 이는 이후 합병이 감소하고 다시 내부적 성장이 기업규모 확대의 주된 형태로 되는 계기가 되었다 [Freyer(1995)]. 그리고 사법부가 합리성 원칙에 따라 기업의 행위에 근거한 규제를 시작하면서, 대기업들의 시장전력이 바뀌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Lamoreaux(1985, chapter 6)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수직적 통합에 의한 원료의 장악이나 제품 차별화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기존업체와 담합하면서 잠재적인 진입을 억압하는 先導企業戰略(dominant firm strategy)을 이용하였다.⁽²²⁾

(20) 이 판결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경우는 셔먼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천명하였다.

(21) 클레이튼법은 노동조합과 농산물판매조합을 셔먼법의 적용에서 제외하였고, 가격차별, 강제 계약(tying contracts), 경쟁을 저해하는 이사진이 교차파견(inter-locking directorship)을 금지하였다.

(22)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부의 직접적인 산업규제 및 미국 산업규제의 비교사적인 성

반독점법이 기업 활동과 경기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란은 역사가 오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최근 Bittlingmayer(1996)는 1891년-1914년 사이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업들이 연루된 반독점관련 기소건수가 생산과 투자에 유의한 악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대기업들에 대한 공격이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투자를 저해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 결과는 이 시기의 기업규모 확대가 시장지배력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5. 美國 大企業의 財務·會計·支配構造

5.1. 企業財務⁽²³⁾

역사적으로 볼 때 기업재무의 역사는 資本動員能力의 확대와 非對稱的인 情報의 극복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Baskin(1988)]. 산업화 초기의 기업들은 널리 알려진 대로 투자자본의 원천을 주로 기업유보이윤이나 친인척의 자금에 의존하였다. 이 경우에는 기업재무와 관련된 비대칭적인 정보의 문제는 별로 없지만 자본동원의 원천이 제약된다는 단점이 있다. 자본동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은 차츰 지방내의 금융기관, 타지방의 금융기관, 전국적인 자본시장 등 자본동원의 잠재력은 큰 반면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적은 익명의 투자자들에게로 자금이 원천을 확대하게 되고 이는 정보상의 비대칭성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공적인 자본시장이 발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이와 같은 정보의 부재에 기인한 투자자들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었다.

일찍부터 공적인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던 부문은 철도나 운하회사와 같은 準公共的인 성격을 띤 산업이었다. 철도나 운하는 상당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우 공유지 불하와 같은 형태로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지역적인 독점기업으로서 높은 수익 전망을 제공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기업법의 변화와 함께 有限責任(limited liability)제도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채권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 기업정보의 보다 투명한 공개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각종 전문잡지 및 서적의 증가로 인해 기업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용이해졌다. 또한 초기 철도회사의 성공으로 투자가

격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뉴딜 산업규제에 관해서는 관해서는 양동휴(2000)를 참고하라. McCraw(1997)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관한 간략한 국제적 비교를 제공해 준다.

(23) 기업재무의 역사에 관한 서술은 Baskin and Miranti(1997)의 저서에 크게 의존하였다.

들의 확신이 높아졌고, J. P. Morgan, Kuhn-Loeb 등과 같은 철도전문 투자은행의 간여는 철도회사들의 공신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는 철도회사들이 비대칭적인 정보를 극복하고 일찍이 증권시장에 진출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까지도 비대칭적인 정보에 따른 위험성은 여전히 높아서 철도회사들의 자본조달은 株式의 발행이 아닌 負債에 크게 의존하였다. 채권에 의한 자본조달의 장점은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담보에 기초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유의 분산 및 경영권의 상실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부채비율은 1890년대의 불황 시 많은 철도회사들이 파산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여건으로 말미암아 19세기 말까지 주식의 주종을 이루었던 것은 優先株(preferred stocks)였다. 이는 최소한의 고정적인 배당수입을 보장하고 파산 시 우선변제의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형태로서, 危險忌避와 經營權防禦라는 기업과 투자가의 요구를 함께 충족시켜 주는 장점이 있었다.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다음과 같은 경제적·제도적 변화와 함께 普通株(common stocks)의 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이 확대되었다. 먼저 근대적인 대기업이 형성되면서 산업 부문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가 높아졌다. 둘째로, 公益産業의 持株會社(public utilities holding company)의 자회사, 투자트러스트(investment trust), 상업은행의 증권회사 자회사, 개인투자가 대상 증권회사(retail brokerage firm) 등 個人投資家를 대상으로 한 전문화된 금융중개기관이 출현하여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²⁴⁾ 마지막으로 점진적이고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기업정보의 공개가 개선되어 帳簿價值(book value)에 기초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시기에는 특히 배당의 크기가 기업가치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었는데, 기업합병운동 이후 대기업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60-80%에 달하는 높은 배당률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여건이 변화를 통해 일반주의 보유는 점차 확대되어 1900년에 50만 명이던 일반주 보유자는 대공황 직전까지는 10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1929년의 주식시장붕괴는 많은 개인들의 파산을 가져오는 등 심각한 사회적인 파장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제도적 미비점과 부당거래의 관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서 證券市場改革을 추진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1933년과 1934년의 證券去來

(24) 투자트러스트는 영국에서는 1860년대부터 등장하였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구성을 포함한 전문적인 자금운용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29년까지는 770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설립된 대표적인 개인투자가 대상 증권회사는 Charles E. Merrill & Co.와 Bache & Co. 등이 있다.

法(Securities Acts)에 명시된 개혁의 내용을 보면 먼저 상장된 기업들로 하여금 정기적인 회계보고서를 공개하게 하였다. 그리고 금융종사자의 책임범위를 확대하여 부정직하거나 성실치 못한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지도록 명시하였다. 증권시장의 규제는 證券去來委員會(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를 통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이후의 부당거래 사례나 최근의 회계부정사건에서 확인되듯이 이와 같은 증권시장개혁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9세기 말 이후에 꾸준히 진행된 금융상품, 자산구성, 거래기법에 있어서의 혁신은 증권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였다[Graham and Dodd(1934)]. 이와 같은 증권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은 시장을 통한 직접적인 자본조달이 미국기업재무의 중심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고, 더 나아가 '약하고 分散된 所有와 강력하고 集中된 經營'으로 표현되는 미국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제도적 기초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5.2. 企業會計⁽²⁵⁾

1900년까지도 미국 제조업부문 기업들의 회계보고는 양적으로 크게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성과 표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은행, 철도, 보험회사 등의 공익기업들은 다소 나은 편이었으나 주의 규제에 따라 회계보고의 편차가 심했으며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양적으로 부족한 공개회계자료들도 기업이나 독립적인 회계사에 의해 공증되지 않았으므로 대중은 전적으로 경영자의 정직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에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회계보고를 했던 기업에는 American Tobacco와 같이 선각자적인 경영인을 둔 기업과 외부자본의 조달이 중요했던 기업 등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정보공개를 꺼리는 현상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에서 발견된다. 기업의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은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所有主 經營者의 전통이 강하고 企業 公共性의 개념이 정착되지 않았던 상황을 들 수 있다. 사적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수집의 책임이 있다는 관념이 정착되어 있었고, 이는 증권의 거래에도 적용되어 주주가 기업의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이 만연했다. 둘째로, 각 주는 더 많은 기업들의 유치를 원했기 때문에 州政府의 企業法은 대체로 기업들에 대해 엄격한 정보공개요구를 하지 않았고 회계보고서를 대외비문서로 취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셋째로, 당시 산업증권은 대체로 기업을 대리한 프로모터나 투자은행들에 의한 대량유통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企業財務公示에 대한 압력을 행

(25) 기업회계의 역사에 관한 일반적인 서술은 Hawkins(1963)의 고전적인 연구에 크게 의존하였다.

사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會計專門家가 부족하고 會計理論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상의 표준이 만들어지기 어려웠던 점을 들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정보의 공시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우선 대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증가하게 되었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한 지위를 지니지 못한 경우에는 “購買者 責任”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그리고 주식투자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당 거래 및 주가조작에 의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실질적인 개혁의 주장은 기업과 비교적 가깝게 연관된 그룹에서 제기되었다. 먼저 뉴욕證券去來所(New York Stock Exchange)는 이미 1869년부터 年次報告書(annual report)를 상장기업에 요구하도록 합의하였고, 1897년에는 그 동안 거의 지켜지지 않던 이 공시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였다. 1926년에는 모든 상장기업에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했으며, 독립적인 회계사에 의한 연차보고서의 공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쉽게 수용되지 않았다. 1910년까지 非上場 部署(unlisted department)가 운영되어 비상장 기업의 주식도 상장기업의 주식과 큰 차이 없이 거래될 수 있었으므로 상장기업에 국한된 공시의무는 쉽게 회피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의 증권거래소 및 장외거래소와의 경쟁 속에서 기업에 엄격한 요구를 강요하기는 어려웠다.

美國投資銀行協會(The Investment Bankers Association of America)도 1920-1927년 사이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산업부분의 증권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하고 이를 공시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는 고객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일반대중의 반감으로부터 투자은행을 보호하는 한편, 연방 및 주정부의 증권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증권의 인수와 판매가 기업이나 증권의 질보다 투자은행의 평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다른 한편, 회계사들은 이 시기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표준적인 회계의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20세기 초를 통해 기업의 외부자본조달의 중요성이 커지고 1913년에는 소득세, 1917년에는 超過利潤稅(excess profit tax)가 도입되면서 公認會計士의 역할이 커지고 이들의 위상이 높아졌다. 1900년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을 필두로 대학에서 회계학 강의가 개설되어 우수한 회계학자들이 출현하였고 1905년에는 회계사들의 전국적인 조직도 만들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연방통상위원회(FTC) 등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표준적인 회계원칙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1917년의 『Uniform Accounting』, 1929년의 『Ver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등 중요한 성과가 발표되었다.⁽²⁶⁾ 그러나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이전까지 이와 같은 전문가집단의 개혁노력은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기업을 고객으

로 둔 이 집단들의 요구는 강력하게 개진되기 어려웠으며 기업들은 쉽게 정보공개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매우 더딘 진보에도 불구하고 進歩主義(progressivism)의 확산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강조되어 갔으며, 브랜드이스(Louis D. Brandeis)나 벌리(Adolph Berle, Jr.)와 같은 비판적인 인사들이 부상하여 이후 기업회계규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와 뒤이은 대공황의 발생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을 증폭시키고 비판자들의 요구가 수용되는 계기를 가져왔다. 1933년 5월의 證券法(The Securities Act)은 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되는 기업의 성격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공시를 명시하였으며 1934년에는 이 법을 자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특별기구인 證券去來委員會(SEC)가 창설되었다. 위원회는 기업들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형식을 표준화하고 기업회계원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장기업의 정보공시를 자체적으로 규제하였다. 반면 주주들에게 제출되는 정기보고서는 여전히 경영자 및 회계사의 정직성에 의존하고 있었다. 회계사들의 전국적인 단체인 美國會計機構(American Institute of Accounting)는 합리적인 표준적인 회계원칙의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證券去來所와의 協力委員會(Committee on Cooperation with Stock Exchange)를 통한 작업의 결과로 1936년에는 『Examination of Financial Statement』를 출간하였고, 會計節次에 관한 委員會(Commission on Accounting Procedure)는 1939년에서 1958년까지 『Accounting Research Bulletin』을 발간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물을 통해 개진된 미국회계기구의 의견은 뉴욕증권거래소와 증권거래위원회의 지지를 받으며 미국 기업들의 표준적인 회계방식으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이 20세기 초반을 통해 만들어지고 정착된 미국기업들의 회계방식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 갈래의 비판은 최근의 기업회계부정사태를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이윤의 보고에 있어서 기업이나 회계사가 지나치게 큰 자율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은 이미 1960년대에 Hawkins(1963)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비판도 존재한다. 기업외부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회계사들이 만든 회계방식이 19세기를 통해 경영자들이 발전시켜 온 기업내부의 통제를 위한 정보전달체계를 왜곡하여 미국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²⁷⁾ 이 견해에 따르면 회계는 經營會計(management accounting)와 財務會計(financial accounting)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개인의 작업 및 하부생산단위를 통제하는 經營情報시스템의 근간이 된다.

(26) 미국회계사협회를 통한 개혁론자들의 회계표준화 노력이 회계사들과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게 된 자세한 과정은 Miranti(1986)를 참고할 것.

(27) 이 주장은 Johnson(1991)의 연구를 통해 잘 나타난다.

19세기 초부터 1920년대까지 미국기업들은 매우 진보된 회계 및 비회계 경영정보시스템을 건설했던 것으로 평가된다.⁽²⁸⁾ 1920년대까지 미국 대기업의 경영자들은 주인의식이 강했으며, 이들이 개별근로자나 하부사업장에 요구했던 것은 단기적으로 바람직한 재무상의 결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일'이었다. 그리고 비용이나 마진에 관한 정보는 재무회계의 부산물이 아니라 개별근로자나 사업장에 관한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기업내부의 효율적인 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발달했던 회계시스템은 企業外部의 요구에 부합하는 財務會計(external financial accounting)의 발전에 의해 대체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회계시스템은 경영자들의 태도를 변화시켰고, 재무회계의 수치는 하급관리자와 근로자들의 평가에 이용되게 되었다. 경영정보의 속성이 주관적이며 生産 및 販賣 過程 指向的(process-oriented)인데 반해, 재무회계의 특징은 객관적이고 原則 指向的(rule-oriented)이다. 따라서 경영자들이 재무회계에 기초하여 경영상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기업구성원의 인센티브와 의사결정에 왜곡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 즉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재무제표상의 목표와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생산자체를 위한 생산, 재무성과의 조작, 장기적인 성장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의 훈련, 보수, 투자 등의 지연과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견해에 따르면 20세기 초반을 통해 회계사들에 의해 고안되고 표준화된 회계시스템은 기업의 투명성 확보에는 공헌했을지 모르지만 기업내부의 경영정보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와 미국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5.3. 支配構造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화 초기 미국기업의 주된 형태는 個人所有企業이나 파트너십이었으며, 주식회사의 본격적인 확산은 19세기 말을 통해서야 이루어졌다. 따라서 20세기 전까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은 개인 혹은 소규모의 집단에 집중되어 있었다. 1800년까지 미국에는 모두 335개의 주식회사가 있었으며, 대다수가 유료도로, 교량 및 운하, 금융업과 같은 공익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Berle and Means(1933, chapter 2)]. 제조업 부문에서 주식회사설립은 19세기 초 뉴잉글랜드 지방의 대규모 면직공장의 건설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세기 중엽 이후 철도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Kim(2003)의 추계에 따르면 1880년까지도 주식회사는 전체 기업 수의 5% 미만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며 중심적인 기업형태는 개인기업(62%)과 파트너십(31%)이

(28) 기업내부의 정보시스템의 발전에 관해서는 Levenstein(1991, 1998), Yates(1991) 등을 참고하라.

었다. 19세기 말이 되자 앞에서 살펴본 기업규모의 확대 및 대량생산체제의 도입과 함께 제조업 및 광업에서의 주식회사전환이 크게 확대되었다. 제조업의 경우 1899년까지 생산의 66.7%가 주식회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 비율은 1919년까지 87%로 증가했다. 주식회사의 비율은 사업의 공공적인 성격이 중요할수록, 고정자본의 필요성이 클수록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주식회사의 등장으로 기업의 所有(ownership)와 支配(control)의 분리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초가 놓이게 되었다.

Berle and Means(1933)의 선구적인 연구에 따르면 20세기의 첫 30년을 통해 미국 대기업들의 소유의 파편화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오늘날 볼 수 있는 미국기업지배구조의 전형적인 형태가 완성되었다. 所有의 破片化는 각 부문의 최대기업들의 최대주주 및 20대 주주들의 지분비율에서 잘 드러난다. 1929년 현재 미국 철도산업의 최대기업이었던 펜실바니아 철도회사의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이 0.34%, 20대주주 전체의 지분이 2.7%에 불과했다. 제조업의 경우, 최대기업이었던 유에스 철강(U.S. Steel)의 최대주주 지분이 0.9%, 20대주주 전체의 지분이 5.1%였다. 당시의 200대 기업 가운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144개 기업을 보면, 절반 이상의 기업이 50,000명 이상의 주주에 의해 소유되었으며, 주주의 수가 5000명 이하인 기업은 20개사에 불과했다. 200대 이하의 기업들도 거대기업들보다는 느렸지만 소유의 분산화가 상당정도 진행되어 있었다.

소유의 파편화와 함께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기업소유와 지배의 분리현상이었다. Berle and Means에 따르면 企業支配의 형태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完全한 所有에 기초한 지배, 2) 多數持分에 기초한 지배, 3) 피라미딩이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발행 등 法的인 道具에 의한 지배, 4) 小數持分에 기초한 지배, 5) 經營者에 의한 지배 등이다. 소유가 파편화된 대기업의 경우, 어느 주주도 지분에 기초하여 지배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주주는 직접 의결에 참여하거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이사진의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파편화된 소유구조 하에서 주주들은 많은 노력을 들여 기업경영을 통제할 유인을 갖지 못하게 된다. 반면 전문경영인들은 정보력의 우위, 주주총회 시 代理人委員會(proxy committee)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이사진의 선임과 이사회 운영을 통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Berle and Means(1933, chapter 5)는 1920년대 미국 200대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지배권의 분포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국 대기업의 58%는 경영자에 의한 지배, 22%는 법적인 도구에 의한 지배구조를 타나내고 있었다. 즉

1920년대까지 대다수의 미국 대기업들은 소유에 기초하지 않은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소유의 파편화와 소유·지배의 분리는 전통적으로 근대적인 대기업의 형성이 가져온 부산물로 파악되었고, 기업조직의 변화가 그러했듯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 진화의 한 형태로 이해되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Chandler(1977)는 대규모 자본동원의 필요성 증가, 해외진출과 다각화에 따른 경영의 복잡화는 소유의 파편화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시켰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근대적 대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는 다른 기업지배구조를 발전시켜왔다. 예컨대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산업화 단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대규모 지분 보유가 일반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구조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국가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차이와 그러한 차이의 역사적인 존속은 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파편화된 소유구조와 경영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낳게 된다.

Roe(1994)의 연구는 美國企業支配構造의 형성을 政治的인 요인에 의해 설명한다. 즉 미국대중은 역사적으로 대규모 금융기관에 의한 경제력의 독점에 대해 강한 불신과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19세기 말부터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지점설립의 규제로 인해 파편화된 단점체제를 형성했던 은행은 대기업의 대주주가 되기에는 지나치게 규모가 작았으며, 1930년대의 은행법은 은행의 증권업 겸업과 주식소유를 제한하였다. 20세기 초의 가장 거대한 금융기관이었던 保險會社는 1906년 이래로 주식의 보유가 금지 내지 제한되었으며, 뮤추얼 펀드와 年基金(pension funds)도 대규모 지분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구조적 제약을 받았다. 소규모 지방은행들의 연합과 같은 이해집단은 어떤 경우에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대부분의 경우 법안통과 이후 규제의 유지를 위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였다. 요컨대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이해집단의 로비에 기초한 일련의 규제법안으로 인해 機關投資家에 의한 대지분의 보유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 미국 기업은 個人投資家를 중심으로 하는 파편화된 소유구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Roe(2003)는 더 나아가 여러 선진국들의 기업지배구조상의 차이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잘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는 주주와 경영자 사이 代理人費用(agency cost)을 증가시켜 미국식의 파편화된 소유구조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력집중에 대한 반감이 대규모 금융기관의 규제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유럽에서와 같은 외부적인 정치적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의 분산화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지배구조의 형성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은 어떤 支配構造模型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오

늘날의 논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형태는 결코 정치적인 진공상태에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난 제도적인 진화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적어도 아무런 외적인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효율성을 추구하여 이루어진 변화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둘째, 한 사회의 기업지배구조는 다른 政治的·社會的·文化的 요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歷史的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기업지배구조와 맞물려 있는 정치·사회·문화적 속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업의 구조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국의 경우, 1979년 보수당 집권 이후 정치적 우경화 및 탈규제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비로소 기업소유분산이 증가하기 시작했던 예는 이를 잘 보여준다.

6. 맺음말: 歷史的인 經驗이 주는 몇 가지 示唆點

기업조직에 관한 쉐들러의 기념비적인 연구에 따르면, 시장의 확대나 기술의 진보와 같은 경영여건의 변화에 빠르게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그 산업의 선도자가 된 기업은 결국 전국 혹은 세계시장을 압도하는 경쟁력을 확보하여 그 분야의 先導企業으로 부상하였다. 선도기업들은 물적인 생산설비, 유통조직, 경영조직 등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組織上의 力量(organizational capabilities)을 축적했으며,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19세기 말에 성장한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에 있어서의 조직상의 역량은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통한 規模의 經濟 달성, 전후방 통합을 통한 大量生産과 大量流通의 결합, 範圍의 經濟를 실현한 제품의 다각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제적인 경영조직의 건설을 통해 얻어졌다.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대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혹은 제품이 출현한 후 10년 이내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생산, 유통, 경영 조직에 대한 세 갈래 투자를 수행하여 선점기업으로 발돋움하였고, 국내 혹은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寡占企業으로 성장하였다. 한 산업의 경쟁력은 이와 같은 과점적인 근대적 대기업들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었다. 기업조직상의 실패가 산업의 실패, 더 나아가 전체 국민경제의 상대적인 쇠퇴로 이어진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산업들에 있어서의 기업경쟁력은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시각은 1960년대 말 이후 미국경영자본주의의 쇠퇴요인에 대해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쉐들러에 따르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출현한 미국의 經營資本主義(managerial capitalism)의 역동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년 동안 전성기를 구가

하며 기본적으로 196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전쟁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이로 인한 지리적 공간의 축소, 미국주도의 무역장벽 완화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었으나 20세기 초에 형성된 대기업들은 여전히 건재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같이 새로운 분야에서도 설비, 유통, 경영인력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소수의 선도기업이 출현하고 이들이 해외진출과 R&D에 기초한 다각화의 전략으로 성장하는 등 과거와 비슷한 기업성장의 패턴이 나타났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대기업들이 경쟁의 격화와 이윤율의 저하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미국의 경영자본주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흔들리는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경영조직의 붕괴를 제시한다.

우선 이윤율의 감소에 직면한 기업들이 기술적인 관련이 적은 분야로의 다각화를 통해 난국을 타개하려 하였고 이는 대규모의 企業合併 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출현한 多品種巨大企業(conglomerates)은 경영조직에 엄청난 부담을 가하게 된다. 경영자들은 기업 내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게 되었고 수많은 상이한 부서의 설립은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에 과부하를 일으켰다. 경영진의 지나친 확대에 의해 경영자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의사결정이 인적인 논의보다 자료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기업합병이 실패로 끝나고 1970년대를 통해서는 대규모 企業分割의 파동이 이어지게 되어, 1970년대 중반까지 기존합병기업의 절반이 분리되었고, 기업의 합병과 분할이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대두되게 된다. 여기에는 資本市場의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2차대전 이후 주식소유가 대중화되었고, 연금금의 규모가 커졌으며, 뮤추얼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런데 채들러에 따르면 연금 및 뮤추얼펀드의 관리자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건전성이 아닌 단기적인 수익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결과, 경영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외시키고 단기적인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기업의 조직상의 역량을 파괴하고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²⁹⁾ 이러한 견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안목과 개인적인 책임의식을 가진 경영자를 중심으로 하는 견고한 경영조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며, 이러한 경영조직은 한 기업의 업종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동질적일 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앞에서 제시된 서베이는 기업조직에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역사적인 경험은 技術的인 요인과 市場環境의 변화가 기업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 영국, 독일의 대기업

(29) Chandler(1994), Hall(1994), Baldwin and Clark(1994) 등은 1960년대 이후 미국 경영자본주의의 성격변화와 그것이 기업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잘 정리해 준다.

들은 주로 화학, 석유, 금속, 전기 등 資本·技術集約的인 産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러한 특성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대기업의 산업별 분포는 20세기를 통해 산업화에 성공한 후발국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제도적 환경과 정부의 정책이 상이한 시대와 국가에 대해 발견되는 산업구조상의 공통적인 성격은 대기업이 특정한 기술·시장의 변화에 대한 조직상의 대응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의 중요성은 현재에도 여전히 크며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까지 그러하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과정이 지속될 경우 세계시장의 추가적인 통합은 기업규모 확대의 유인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세기를 통해 많은 국가에서 유지되어 온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21세기에 들어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근래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과 기술의 변화는 기존 대기업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보급은 기업 내 권한관계와 직무구조를 보다 수평화시키고 의사결정을 분권화시킴으로서 기존 대기업들의 관료제적인 성격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Bresnahn, Brynjolfsson, and Hitt(2002)]. Rajan and Wulf(2003)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중간관리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미국의 300대 기업들의 경영조직이 근래에 들어 수평적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20세기 초반을 통해 형성되었던 기업들의 내부노동시장은 1980년대 이후 크게 유연화된 것으로 평가된다.⁽³⁰⁾ 이와 함께 많은 대기업들이 수직적으로 결합되었던 회사를 分社시키고 원자재, 중간재 및 기타 서비스의 공급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정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거래비용의 감소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경쟁압력 및 불확실성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³¹⁾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시사점은 한 국가의 企業構造가 기술이나 시장과 같이 시대

(30) 아직까지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1980년 이후 이직률이 높아지고 직업의 안정성이 저하되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Swinnerton and Wial(1995), Neumark, Polesky, and Hansen(1999), Bernhardt *et al.*(1999) 등을 참조할 것.

(31) 그러면 왜 19세기의 기술변화와 시장의 통합은 기업의 수직적인 통합과 관료제적인 기업구조를 낳은 반면 20세기 말의 유사한 기술변화 및 시장의 확대는 아웃소싱의 확대와 경영조직의 유연화를 가져왔을까? 이에 대해 확실한 해답을 던지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제시한 서베이를 기초로 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로 19세기의 교통통신의 발달이 가져온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제품의 출현은 지역이나 업종에 있어서 기업 활동의 외연을 크게 확대했으며, 이것이 가져온 통합의 유인은 거래비용 감소효과를 압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20세기에 있어서는 시장이 과거보다 발달하였고, 국내 및 해외의 경쟁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는 수직적 통합보다 더 큰 거래비용감소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와 국가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특수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인에 의해 역사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쉐들러가 비교적 간과했던 資本市場, 勞動市場, 法과 政府政策이 기업구조에 미친 영향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이 가장 먼저 근대적 대기업의 형성과 발달을 경험했던 것은 쉐들러의 지적과 같이 시장과 기술의 특성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었지만, 유럽국가들과 구별되는 자본시장의 성격, 노동조직의 강도, 숙련공의 공급조건, 반독점 규제의 성격 등의 요인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자본시장, 노동시장, 정부규제의 성격 등은 미국의 고유한 政治的·社會的·文化的 배경에서 歷史的으로 형성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에는 국제적인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는 미국의 기업재무·회계·지배구조는 적어도 19세기 말까지는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전근대적인 것이었으며, 이후 오랜 시간과 사회적인 갈등을 거치며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해 왔던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기업지배구조의 형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잘 드러나듯이 이와 같은 제도적 진화는 정치적인 진공상태에서 순전히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와 무관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 제약과 압력에 크게 좌우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미국의 企業財務·會計·支配構造를 국제적인 표준 혹은 모델로 수용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선 기업의 구조와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미국과 같은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 (적어도 단기적으로) 산업·기업경쟁력의 제고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둘째, 미국의 제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정치·사회·문화적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었던 만큼, 특정한 제도의 도입은 기존 기업구조의 다른 면들과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³²⁾

(32) 이러한 함의는 선진국의 산업정책의 역사에 기초한 Chang(2002)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연구는 선진국들의 산업화 초기단계의 산업정책과 제반제도들은 오늘날의 표준으로는 후진적인 것이었으며 이것들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적지 않은 사회적인 갈등과정이 소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볼 때 오늘날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제안하는 산업화의 전략은 선진국들의 이해에 따른 것이며 후진국들의 경제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서울대학교 經濟學部 副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396

팩스: (02)886-4231

E-mail: chullee@snu.ac.kr

參 考 文 獻

- 김남석(1999): “미국 투자은행의 산업기업 지배방식과 그 결과,” 『경제사학』, 26호.
- 양동휴(1994): 『미국경제사 탐구』, 7장.
- _____(2000): “뉴딜 경제정책의 공과,” 『경제사학』, 28호.
- 이철희(1990): “19세기말-20세기초 미국 자본시장의 성격이 산업집중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14호.
- Baldwin, C., and K.B. Clark(1994): “Capital-Budgeting System and Capabilities Investments in U.S. Compani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Business History Review*, **68**, 73-1-9.
- Baskin, J.B.(1988):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Financial Markets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1600-1914: Overcoming Asymmetric Information,” *Business History Review*, **62**, 199-237.
- Baskin, J.B., and P.J. Miranti, Jr.(1997): *A History of Corporate Finance*, Cambridge.
- Bernhardt, A., M. Morris, M. Handcock, and M. Scott(1999): “Trends in Job Instability and Wages for Young Adult 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 S65-S90.
- Berle, A., and G. Means(1933):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Macmillan.
- Bittlingmayer, G.(1996): “Antitrust and Business Activity: The First Quarter Century,” *Business History Review*, **70**, 363-401.
- Brensnahan, T.F., E. Brynjolfsson, and L.M. Hitt(2002): “Information Technology, Workplace Organization, and the Demand for Skilled Labo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 339-376.
- Calomiris, C.(1995): “The Costs of Rejecting Universal Banking: American Finance in the German Mirror, 1870-1914,” in N. Lamoreaux and D. Raff(eds.),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Chapter 8.
- Cameron, R.(1967): *Banking in the Early Stages of Industrialization*,

- _____ (1972): *Banking and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Carlton, D., and P. Coclanis(1989): “Capital Mobilization and Southern Industry, 1880-1905: The Case of the Carolina Piedmont,”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9**, 73-94.
- Carosso, V.P.(1970): *Investment Banking in America*, Cambridge MA, Harvard.
- Carter, S., and E. Savoca(1990): “Labor Mobility and Lengthy Jobs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0**.
- Chandler, Alfred D.(1962): *Strategy and 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 _____ (1977): *The Visible Hand*, Cambridge MA, Belknap.
- _____ (1990): *Scale and Scope*, Cambridge MA, Belknap.
- _____ (1994): “The Competitive Performance of U. S. Industrial Enterprises since the Second World War,” *Business History Review*, **68**, 1-72.
- Chandler, A., F. Amatori, and T. Hikino(eds.)(1997): *Big Business and the Wealth of N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ng, H-J(2002): *Kicking Away the Ladder*, Anthem Press.
- Coase, R.H.(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4**.
- Collins, M.(1991): *Banks and Industrial Finance in Britain 1800-1939*, Cambridge.
- Davis, Lance(1965): “The Investment Market, 1870-1914,”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5**, 355-399.
- Davis, Lance E.(1966): “The Capital Markets and Industrial Concentration: The U.S. and U.K., a Comparative Study,” *Economic History Review*, **19**, **2**, 255-272.
- De Long, J.B.(1990): “Did J.P. Morgan’s Men Add Value? An Economist’s Perspective on Financial Capitalism,” NBER Working Paper, **3426**.
- Gerschenkron, A.(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raham, B., and D. Dodd(1934): *Security Analysis*, Whittlesey House.
- Fogel, R.(1967): “The Specification Problem in Economic Histo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7**, 283-308.
- Fohlin, C.(1999): “Universal Banking in Pre-World War I Germany: Model or Myth?”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36**, 305-343.
- Freyer, Tony(1995): “Legal Restraints on Economic Coordination: Antitrust in Great Britain and America, 1880-1920,” in N. Lamoreaux and D. Raff(eds.),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chapter 6.

- Habakkuk, H.J.(1962): *American and British Technology in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 B.H.(1994): "Corporate Restructuring and Investment Horizons in the United States, 1976-1987," *Business History Review*, **68**, 110-143.
- Hannah, Leslie(1983): *The Rise of the Corporate Economy*, Second ed.,
- Harley, C.K.(1974): "Skilled Labor and the Choice of Technique in Edwardian Industry,"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11**, 391-414.
- Hawkins, David(1963): "The Development of Modern Financial Reporting Practices among American Manufacturing Corporation," *Business History Review*, **37**, 135-168.
- Hovenkamp, H.(1991): *Enterprise and American Law, 1836-1937*, Harvard.
- Jacoby, Sanford(1985): *Employing Bureaucracy: Managers, Unions, and the Transformation of Work in American Industry, 1900-1940*, Columbia Univ. Press.
- Jacoby, Sanford, and Sunil Sharma(1992): "Employment Duration and Industrial Labor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1880-198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2**.
- James, John A.(1976): "Banking Market Structure, Risk, and the Pattern of Local Interest Rates in the United States, 1893-1911,"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8**, 453-462.
- John, R.R.(1997): "Elaborations, Revisions, Dissents: Alfred D. Chandler, Jr.'s The Visible Hand after Twenty Years," *Business History Review*, **71**, 151-200.
- Johnson, Thomas(1991): "Managing by Remote Control: Recent Management Accounting Practice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Peter Temin(ed.). *Inside the Business Enterprise*.
- Kanazawa, M., and R. Noll(1994): "The Origins of State Railroad Regulation: The Illinois Constitution of 1870," in C. Goldin and G. Libecap(eds.), *The Regulated Economy*.
- Keller, Morton(1980): "Regulation of Large Enterprise: The United States Experience in Comparative Perspectives," in A. Chandler and H. Daems(eds.), *Managerial Hierarchies*, chapter 5.
- Kennedy, W.P.(1987): *Industrial Structure, Capital Markets and the Origins of British Economic Decline*, Cambridge.
- Kim, D.(2003): "The Popularity of Partnership in United States Manufacturing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Mimeo, UCLA.
- Kolko, G.(1963): *The Triumph of Conservatism: A Reinterpretation of American History, 1890-*

- 1916, New York, Free Press.
- _____ (1965): *Railroad and Regulation, 1877-1916*,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moreaux, Naomi R. (1985): *The Great Merger Movement in American Business, 1895-190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1): "Information Problems and Banks' Specialization in Short-Term Commercial Lending," in Peter Temin (ed.), *Inside the Business Enterprise*, Chapter 5.
- Lamoreaux, N., and K. Sokoloff (1999): "Inventors, Firms, and the Market for Technology i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in Lamoreaux, Raff, and Temin (eds.), *Learning by Doing in Markets, Firms, and Countries*, chapter 1.
- Lazonick, William (1990): *Competitive Advantage on the Shop Floor*,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4): "Employment Relations in Manufacturing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Floud and McCloskey (eds.), *The Economic History of Britain since 1700*, second ed., vol. 2, chap. 4.
- Levenstein, M. (1991): "The Use of Cost Measures: The Dow Chemical Company, 1890-1914," in Peter Temin (ed.), *Inside the Business Enterprise*.
- _____ (1998): *Accounting for Growth: Information System and the Creation of the Large Corporation*, Stanford.
- Lipartito, K.J. (1983): "The New York Cotton Exchange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tton Futures Market," *Business History Review*, 57, 50-72.
- Lloyd-Jones, R., and M.J. Lewis (1994): "Personal Capitalism and British Industrial Decline: The Personally Managed Firm and Business Strategy in Sheffield, 1880-1920," *Business History Review*, 68, 364-411.
- McCurdy, Charles W. (1978): "American Law and the Marketing Structure of the Large Corporation, 1875-189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38, 631-649.
- McCraw, Thomas K. (1997): "Government, Big Business, and Wealth of Nations," in A. Chandler, F. Amatori, and T. Hikino (eds.), *Big Business and the Wealth of Nations*, chapter 18.
- Miranti, Jr., P. (1986): "Associationalism, Statism, and Professional Regulation: Public Accounts and Reform of Financial Market, 1896-1940," *Business History Review*, 60, 438-468.
- Mowery, David, and Nathan Rosenberg (1989): *Technology and the Pursuit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vin, T.R., and M.V. Sears (1955): "The Rise of Market for Industrial Securities 1887-1902," *Business History Review*, 29, 105-138.

- Nelson, R.L.(1959): *Merger Movements in American Industry, 1895-1956*, Princeton.
- Neuburger, H., and H. Stokes(1975): "German Banks and German Growth, 1883-1913: An Empirical View," *Journal of Economic History*, **34**.
- Neumark, D., D. Polsky, and D. Hansen(1999): "Has Job Stability Declined Yet? New Evidence for the 1990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 S29-S64.
- Parker, William N.(1991): "The Scale and Scope of Alfred D. Chandler, Jr.,"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1**, 958-964.
- Quadagno, J.(1988): *The Transformation of Old Age Secur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ff, Daniel(1988): "Wage 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ive-dollar Day at Ford,"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8**, 387-399.
- Rajan, R.G., and J. Wulf(2003): "The Flattening Firm," NBER Working Paper No. **9633**.
- Rajan, R.G., and L. Zingales(2003):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 New York, Crown Business.
- Ramirez, C.D.(1993), *Essays on Financial Capitalism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Ransom, R.L., R. Sutch, and S.H. Williamson(1993): "Inventing Pensions: The Origins of the Company-Provided Pension in the United States, 1900-1940," in K.W. Schaie, and W.A. Achenbaum(eds.), *Societal Impact of Aging: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1-38.
- Roe, M.(1994): *Strong Managers, Weak Owners*, Princeton.
- _____ (2003): *Political Determinants of Corporate Governance*, Oxford.
- Rothbarth, E.(1946): "Causes of the Superior Efficiency of U.S.A. Industry as Compared to British Industry," *Economic Journal*, **56**, 383-390.
- Schmitz, C.J.(1993): *The Growth of Bi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1850-1939*, Cambridge.
- Shiells, Martha E.(1990): "Collective Choice of Working Conditions: Hours in British and U.S. Iron and Steel, 1890-1923,"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0**, 379-392.
- Sokoloff, K.L.(1984): "Was the Transition from the Artisan Shop to the Nonmechanized Factory Associated with Gains in Efficiency?: Evidence from the U.S. Manufacturing Censuses of 1820 and 1850,"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1**, 551-382.

- _____ (1988): "Inventive Activity in Early Industrial America: Evidence From Patent Records, 1790-1846,"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8**, 813-850.
- Sokoloff, K.L., and D. Dollar(1997): "Agricultural Seasonality and the Organization of Manufacturing in Early Industrial Economies: The Contrast betwee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7**, 288-321.
- Sokoloff, K., and Z. Kahn(1990): "The Democratization of Invention during Early Industrialization: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1790-1846,"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0**, 363-378.
- Summers, L.H., and R.N. Clarke(1980): "The Labor Scarcity Controversy Reconsidered," *Economic Journal*, **90**, 129-139.
- Sundstrom, William(1988): "Internal Labor Markets before World War I: On-the-Job Training and Employee Promot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5**.
- Sushka, Marie E., and W. Brian Barrett(1984): "Banking Structure and the National Capital Market, 1869-1914,"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4**, 463-478.
- Swinnerton, K., and H. Wial(1995):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8**, 293-304.
- Sylla, Richard(1969): "Federal Policy, Banking Market Structure and Capital Mob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1863-1913,"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9**, 657-686.
- Temin, P.(1966): "Labor Scarcity and the Problem of American Industrial Efficiency in the 1850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6**, 277-298.
- Whaples, Robert(1990): "Winning the Eight-Hour Day, 1909-1919,"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0**, 393-406.
- Williamson, O.E.(1975):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Free Press.
- _____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irms, Markets, Relational Contracting*, New York, Free Press.
- _____ (1986): *Economic Organization: Firms, Markets and Policy Control*, Brighton, Wheatsheaf.
- Yates, J.(1991): "Investing in Information: Supply and Demand Forces in the Use of Information in American Firms, 1850-1920," in P. Temin(ed.), *Inside the Business Enterprise*, Chicago University Press.